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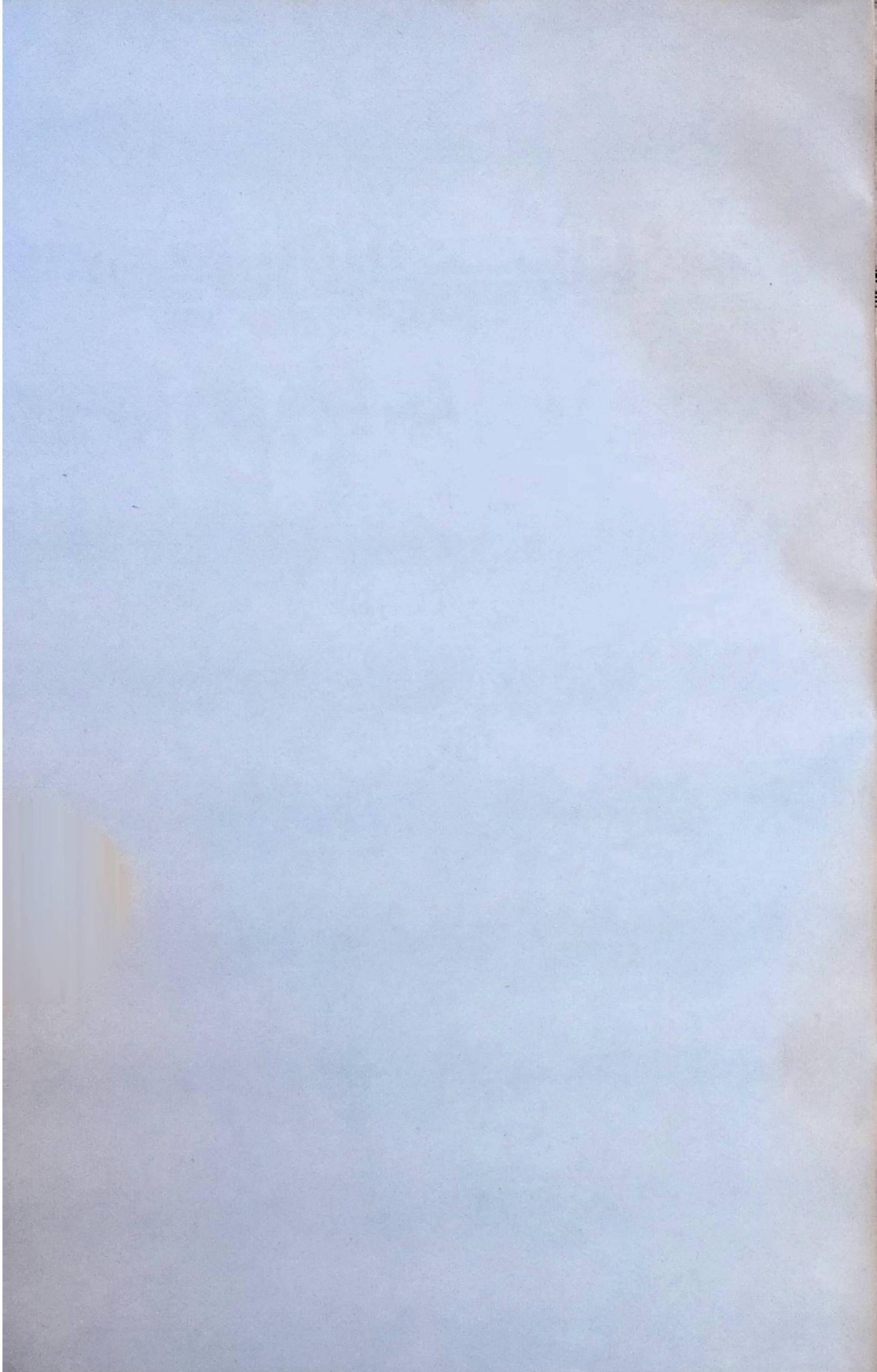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사



조선 · 평양

1994



차 례

머리글(6)

제 1 장

평화적건설시기 파괴된 화학공업의 복구, 확장을 위한 투쟁. 주요 화학제품생산 능력의 해방전수준 륭가

제1절.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8)

제2절.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 확장하기 위한 투쟁(14)

1.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14)

2. 화학공장들의 확장과 새로운 화학공장건설을
위한 투쟁, 국영제약공업의 창설(25)

제3절. 과도기 첫시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32)

1. 1947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완수하기

- 위한 투쟁.....(3 2)
- 2.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기
위한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4 8)
- 3. 2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 화학제품생산계획수행을
위한 투쟁, 주요 화학제품생산의
해방전수준 평가.....(5 4)

제 2 장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 화학공업의 장래 발전을 위한 준비사업 적극 추진

- 제1절.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발전의 기본
방향, 화학공업의 전시체제에로의 개편,
전시화학제품생산의 강화.....(6 5)
- 1. 전시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 화학공업의
전시체제에로의 개편.....(6 5)
- 2. 전시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6 8)
- 제2절. 전후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강화.....(8 4)
- 1. 파괴된 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투쟁(8 4)
- 2. 비날론생산의 공업화를 비롯한 과학
연구사업의 강화, 화학공업부문

기술인재양성사업의 적극적추진.....(87)

제 3 장

전후복구건설시기 화학공업의 복구개건. 화학공업부문에서 3개년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

제1절. 3개년계획시기 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98)

제2절. 전후화학공업의 복구개건을
위한 투쟁.....(104)

1.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적극적추진.....(104)

2. 화학비료공장들의 복구개건사업의
성과적추진, 흥남비료공장의
완전복구(107)

3. 팔프와 종이를 비롯한 화학제품
생산공장들의 복구개건.....(119)

제3절. 화학공업부문에서 3개년인민
경제계획의 기한전완수.....(123)

제4절. 화학공업부문에서 기술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의 적극적추진.....(137)

제 4 장

5개년계획시기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 화학공업 부문에서 대중운동의 확대발전

제1절. 5개년계획시기 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150)

제2절. 화학공업기지의 개건, 확장을
위한 투쟁.....(158)

1. 화학비료생산기지의 확대강화.....(158)

2. 자체의 원료에 의한 인조섬유
생산능력의 조성.....(166)

3. 제약공업기지의 축성.....(170)

제3절.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창설, 유기
화학공업의 튼튼한 토대 마련.....(173)

1. 비날론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
《비날론속도》의 창조.....(173)

2. 비날론공업창설이 가지는 의의(186)

제4절. 염화비닐과 염료공업의

창설을 위한 투쟁(189)

제5절. 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강화.....(194)

제6절. 화학공업 부문에서 대중운동의
확대발전(205)

1.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
1957년도 화학제품 생산
계획의 초과완수.....(205)

2. 공화국창건 10돛기념 증산경쟁운동과
집단적혁신운동의 확대발전.....(218)

3. 화학공업 부문에서 천 리마작업반
운동의 확대발전, 5개년화학제품
생산계획의 기한전 초과완수(226)

머 리 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그 발전전망도 대단히 큼니다.》(《김일성지작집》 14권, 304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언제나 화학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이 부문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에 튼튼히 의거하여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응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진두에서 화학공업기지들을 창설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혁명적인 대책들과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시면서 이 부문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화학공업은 자체의 원료,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전하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의약품과 염료, 비닐론, 아닐론, 모비론, 합성수지, 산, 알카리를 비롯한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 강력한 무

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다 갖추코 나라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다방면적인 주체적인 공업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사》는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화학공업건설사상과 탁월한 령도, 공산주의적덕성을 서술하였다.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이 벌려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과 이 과정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와 경험들을 제1권(1945-1960)과 제2권(1961-1986)으로 나누어 력사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제 1 장

평화적건설시기 파괴된 화학공업의 복구, 확장을 위한 투쟁. 주요 화학제품 생산능력의 해방전수준 륭가

제 1 절.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우리 나라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하루빨리 복구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는것을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과업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업을 복구하고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가장 긴급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 광산, 기업소들을 시급히 정리복구하여 생산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363페이지)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가성소다와 카바이드 생산을 늘이며 특히 화학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5권,

169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 부문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시급히 정리복구하고 화학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토대를 쌓으며 주요 화학제품생산에서 해방전수준을 넘어서는것이였다.

인민경제계획들에는 우선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정리복구하며 확장신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밝혀져있다.

계획기간에 흥남비료공장의 류산직장배소로, 변류직장의 변류기, 합성직장의 1,500마력압축기, 제2초산공장과 린산전기로를 비롯한 화학비료공정들을 우선적으로 정리복구하여 생산을 시작하며 순천화학공장의 카바이드전기로, 평양화학공장의 스프생산공정과 원산석유공장, 인조석유공장의 가스발생로와 산소분리기 복구를 다그쳐 끝내는것이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또한 청수화학공장의 석회질소비료직장과 흥남비료공장의 접촉류산직장, 초안초산직장의 4,000마력압축기의 신설공사를 다그치며 길주와 신의주 팔프공장에서 종이생산능력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인민경제계획에는 또한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업들도 밝혀져있다. 화학공장들에서 화학비료, 가성소다, 카바이드, 전극, 석유, 소금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화학비료는 1946년에 비하여 1947년에 거의 2배로, 2개년계획말인 1950년에는 41만 5,600톤, 가성소다는 2만 2,000톤, 카바이드는 14만 3,000톤, 전극은 1만 4,000여톤, 비누는 2,200톤, 소금은 22만톤을 생산할것을 예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의 과업들은 해방후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형편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한것으로서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했던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업이였다.

장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이 매우 심하였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경제의 전면적군사화의 일환으로 건설한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무기화학공업에 편중하고 반제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생산구조는 심히 편파적이고 국내 다른 공업과의 생산적연계는 거의 없었다.

또한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기술장비는 매우 낙후하여 생산성이 극히 낮았을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보호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서운 고역을 당해왔다. 더욱이 일제는 패망하면서 얼마 안되는 화학공장들마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였다. 결과 원래 적게 생산하던 화학제품마저 해방직후에는 생산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화학제품생산을 빨리 늘이고 화학공업이 가지고있는 부족점을 퇴치하며 앞으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확장하면서 일부 새로운 화학공장들을 건설하여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의 과업들은 또한 전반적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의 복구발전을 다그쳐 나라의 모든 경제를 발전시키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하였던 당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화학공업부문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보다도 화학공업부문에서 선후차를 옮겨 가려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복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그 토대가 매우 미약하고 자금과 로력, 기술과 자재가 대단히 부족한 조건에서 그를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복구발전시킬수는 없었다. 따라서 일정한 생산토대가 있고 생산을 빨리 시작할수 있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

히 요구되는 화학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공장들을 복구하는데 자금과 로력을 우선 돌리고 점차 나머지 화학공장들을 복구하며 새로운 화학공장들을 건설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화학공업부문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다음으로 화학공업부문의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일제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이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감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및 계급적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 이행할수 있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속에 뿌리박힌 일제사상잔재는 혁명과 경제건설을 저해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일제사상잔재를 없애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온갖 예비를 동원하여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화학공업의 복구발전을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이 나라와 공장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노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기계설비들과 자재를 적극 애호절약하기 위한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속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화학공업부문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또한 기술자와 기능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것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해방후 우리에게는 기술간부가 극히 부족하였고 기능공도 얼마 없었다. 이것은 화학공업을 복구건설하는데서 나선 가장 큰 난관의 하나였다.

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기술자들을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기술자와 기능공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야 하였다. 그렇게 하여야만 일제통치의 결과 해방직후에 조성되였던 기능공과 기술자들의 심한 부족을 타개하고 파괴된 화학공장의 복

구와 새로운 화학공장 건설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기술자들을 새 사회 건설에 인입시켜 그들을 교양개조하는 한편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기술자들을 키워내면서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능공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복잡한 화학공정들로 장비된 화학공장들을 우리의 힘으로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화학공업부문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또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증산경쟁을 잘 조직하고 생산돌격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집체적인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중첩되는 난관들을 타개하면서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특히 화학공업의 토대가 매우 빈약하고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기술기능수준이 어리었던 당시의 형편에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공장, 기업소 호상간, 한 공장내에서 부문과 부문간 그리고 부문내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증산경쟁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영웅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여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서 일대 추진력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기술창안자업을 강화하여 기술장비들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생산방법을 개선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임으로써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도 몸소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

시여 화학공업부분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함으로써 기업 관리를 계획화할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마련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복구를 기본으로 하는 1947,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개건 및 신설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7년 2월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 대회에서 홍남지구에 화학비료, 산, 알카리, 카바이드 등 주요 화학제품생산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조건에 맞게 농업생산과 기초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자의 중심을 홍남지구의 화학공장들의 복구건설에 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파괴된 화학공업을 복구건설하고 방대한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에로의 하나였던 기술자, 기능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7년 10월에 화학공업부문 기술일군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홍남공업대학(오늘의 함흥 화학공업대학)을 세우시고 홍남을 비롯한 여러곳에 화학공업전문학교들과 기술원양성소들을 설치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족되는 기능공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각 공장들에 직장학교를 세우고 기술견습제를 내오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기술과 기능을 배울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새로운 화학공업부분들 특히 물감, 의약품, 화학일용품 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도록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일련의 폭발물공장들을 물감공장, 유기합성공장들로 전환시키며 홍남지구에 6개의 분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6월에는 로동법령을 실시하여 화학공장들에서도 로동조건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인민경제가 복구발전됨에 따라 로동보호시설들을 더욱 완비하고 더 많은 로동보호물자와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편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에서 공화국정부를 구성하시면서 산업성을 내오신데 이어 내각결정 제3호로 산업성안에 화학공업관리국을 내오도록 하시여 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1949년 12월 내각결정 제182호를 비롯한 여러 결정들에서 화학공장들을 복구개건하며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과 혁명적인 대책들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인민생활과 관련된 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제2절.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 확장하기 위한 투쟁

1.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 떨어나선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화학공장들을 복구하는데서 나선 애로와 난관은 우선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으로부터 오는것이였다.

일제가 철두철미 침략과 약탈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화학공장들을 건설한것으로 하여 전반적공업의 부문구조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화학공업자체의 구성에서도 기형성과 기술적락후성이 매우 우심하였다. 유기화학공장이 전혀 없는데다 무기화학부문자체도 산, 알카리를 비롯한 기초화학부문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주로 화학비료와 균수화학제품 그리고 제지, 펄프 등 산림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부문들로 구성되어있었다. 게다가 일본독점자본가들이 저마끔 공장을 건설하다보니 공장들호상간, 부문들호상간 련계가 없고 한 공

장안에서의 생산공정도 대단히 조잡하였다. 특히 일제가 주요 기계설비와 부속품들은 일본에서 가져다 조립하였으므로 공장을 복구하려고 하여도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이 없었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적은것도 화학공장복구에서 나서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선사람들은 기술을 배울수 없게 하였다. 그 결과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매우 적었으며 기능로동자들도 많지 못하였다. 화학공업부분안의 기술자들의 실태를 분석한대 의하면 해방직후 충남비료공장에는 겨우 2명의 기사가 있었으며 청수, 순천, 영안 화학공장들에는 한명의 기사도 없었고 청수화학공장에 약간명의 기수가 있었을뿐이었다. 그러므로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면서 몇명 안되는 기술자와 기능공들로 복잡한 화학제품생산공정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금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려고 하여도 사올수 없었으며 따라서 모든것을 자력갱생하여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악랄한 파괴암해책동,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하여 로동계급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고용살이적근성과 자유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 뒤떨어진 기술문화수준 등 해방후 화학공장들을 복구하는데서는 실로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겹쌓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화학공업부분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정리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화학공업부분 로동계급들은 무엇보다도 공장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었다.

해방직후 일제와 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공장들과 설비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새 조선의 주인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각을 가슴깊이 새긴 화학공업부문 노동자들은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공장을 지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섰으며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대표적으로 홍남지구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들의 투쟁을 들수 있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8.15해방직후 선진적인 노동자들로 홍남지구노동조합을 꾸고 있을수 있는 적들의 파괴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무장자위대원들과 노동자들은 공장을 관리하던 놈들과 홍남지구에 집결된 패잔병무리들이 공모하여 화약창고를 폭파시킬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것을 미리 알아내고 놈들의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였으며 일본놈기술자들과 감독놈들이 도면창고에서 도면을 훔치려고 책동하던 때에도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도면을 지켜냄으로써 그것으로 공장을 복구할수 있게 하였다.

홍남지구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 조선 건설로선을 철저히 옹호하고 우리의 혁명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홍남비료공장을 비롯한 홍남지구의 화학공장 노동계급들은 9월중순 반혁명분자들이 새로 조직된 함경남도인민위원회를 공격하려 할 때 노동자부대를 편성하고 마치고 팽이를 메고 《직기가》를 부르면서 20리길을 달려가 놈들의 준동을 짓부시었다. 그리하여 적들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파괴된 공장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료공장을 완전히 복구하여 비료를 많이 생산함으로써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2권, 170페이지)

화학비료공장을 복구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일뿐아니라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자

주독립국가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중대한 정치적문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화학비료공장들을 야만적으로 파괴하고 도망치면서 조선사람들은 제 힘으로 공장을 복구할수 없다고 떠벌였다. 농들은 흥남비료공장에서만 하여도 류산직장의 수십대의 배소로들과 전기수진장치들, 변류직장의 변류기를 비롯한 전기설비들, 류안포화기, 1,500마력압축기 등 중요설비 거의 전부를 형체조차 알수 없게 파괴하고 도망치면서 《류산탐우에 잡초만 무성하리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공장을 복구하여 생산을 진행한다면 농들에게 큰 타격으로 될것이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당과 인민정권이 있을 때 근로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자체의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게 될것이었다. 참으로 화학비료공장복구는 단순히 공장을 복구하여 생산을 내는 경제실무적문제인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선인민이 새 나라를 일떠세우느냐 못세우느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였다.

화학비료공장복구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대상은 흥남비료공장이었다.

그것은 흥남비료공장이 당시 우리 나라 화학비료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있을뿐아니라 류산, 암모니아, 글리세린, 진극, 경화유, 비누, 지방산, 마그네시움, 빙정석을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흥남비료공장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 나라의 전반적인 인민경제에 대한 복구사업과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을뿐아니라 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로동계급들을 크게 고무할수 있었다.

흥남비료공장복구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1945년 12월 6일과 1946년 4월 17일 현지도였다.

1945년 12월 6일, 이날은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의 새 력사가 시작된 뜻깊은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몸소 현지에까지 오시여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성이 강한 로동계급이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이제는 동무들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비료가 있어야 쌀을 생산할수 있으며 쌀이 있어야 건국을 할수 있으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는 우리 나라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신임의 표시였으며 새 조국 건설에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히신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아안은 끝없는 영광을 지닌 이곳 로동계급들은 높은 건국열의를 안고 공장복구에 일떠섰다.

그리하여 파괴된 비료생산계통은 불과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기본적으로 복구되고 토지개혁의 봄을 맞은 농촌에 백옥같은 비료를 실어보낼수 있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6년 4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이 공장을 찾으시여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앞에서 《새 조국 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흥남은 로동계급의 근거지이고 새 민주조선 건설의 기지이며 조선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역센 투쟁에 의하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데 대하여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 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흥남 비료공장 로동계급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두다 건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는 흥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을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건국도상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비료공장복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홍남비료공장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946년 11월 25일 《홍남시 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와 1947년 5월 10일 《홍남비료공장 산업재정계획수행에 대한 당단체 협조정형에 대하여》 그리고 1948년 6월 14일 《홍남비료공장내 당건설사업과 신입당원훈련에 대하여》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들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1946년부터 1950년 6월 25일전까지 무려 4억 1,558만원(구화폐)의 자금을 기본건설투자액으로 할당하도록 해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홍남비료공장복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의 하나는 류산직장의 배소로를 복구하는것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류산직장 노동자들은 주로 고열이 심한 로상작업이나 광재운반작업, 먼지가 심한 파쇄장일만을 하다보니 배소로의 축조경험이나 운전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까짓거 한번 배소로를 뜯어봅시다. 그러면 그 내속을 알게 아니요. 왜놈들 미운 생각만 해도 당장 불을 지펴야지 어디 가슴이 터져 견딜수 있소!》라고 하면서 대담하게 배소로 복구공사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배소로를 해체하면서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 내화벽돌 한장한장에 번호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나갔으며 지혜를 합쳐 끝내 복잡한 배소로의 축조비밀을 밝혀내고야말았다. 두번째 배소로도 이런 방법으로 다시 쌓았다.

복구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자 더 많은 용접용산소가 필요하였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우선 50립방능력의 산소압축기도 더 들러야 하고 산소병도 더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산소압축기의 압축기변과 압축실린더의 바킹이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은 왜놈들도 수입해다가 썼기때문에 도저히 만들수 없다고 하면서 우에다 손을 내밀었다. 바로 이러한 때 가스

직장에서 첫 당세포총회가 열리었다. 회의에서 한 당원은 《왜놈들은 수입해다 썼지만 우리는 재손으로 만들어 써야 하오! 그런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사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밀 형편도 못되지 않소. 은 나라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자체로 만들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다른 한 당원은 《웁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산속에서도 폭탄을 만드시여 왜놈들과 싸워이기고 나라를 해방하시였소.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당원들은 이 복구사업에서도 그런 혁명정신으로 일해야 할것이 아닙니까!》라고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집체적인 지혜를 모아 부속품의 대용재질을 찾아냈고 보잘것없는 피대선반을 돌려 부속품들을 가공하여 끝내 자체의 힘으로 산소압축기도 살려내고야말았다.

변류직장을 복구하는것도 어려운 대상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전기설비와 전기선들이 너무나 혹심하게 파괴되였고 그것을 복구할수 있는 기술자도 기능공도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왜놈들이 없애버린 저항축전기대신에 수동신호식전화기로 동기조절기와 변류기배전실사이의 지하배선망들을 하나하나 갈라내고 해당 단자에 련결하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면서 설비들을 복구해나갔다.

또한 합성직장, 전해직장, 질소직장 등은 공장이 멀쳐나서고 모든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치니 전혀 복구하기 어렵다던 합성직장의 1,500마력압축기도 성과적으로 복구할수 있었다.

이처럼 흥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의 불타는 충성심에 의하여 공장복구가 빨리 추진되어나갔으며 여러 공정들이 점차 가동하여 화학비료생산을 시작하게 되였다. 그들은 달성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 전진함으로써 1948년 5월에는 제2초산공장과 탄산진기로를 각각 복구완성하였고 1949년 5월에는 80톤생산능력의 제4류산과 2호장치를 복구완성하여 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화학비료생산공정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은 순천화학공장에서조차 힘있게 벌어졌다. 순천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공장설비들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분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주야간 투쟁을 벌

림으로써 1945년 9월 18일에는 첫째 가마에, 10월 20일에는 둘째 가마에, 1946년 3월 1일에는 셋째 가마에 대한 화입을 진행하여 생산에 들어갔다.

본궁 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파괴된 카바이드전기로를 복구하는데서 기술과 자재의 부족 등 어려운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섰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바이드전기로를 빨리 복구하여 카바이드생산을 시작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1948년 3월 1일에는 제4호카바이드전기로를 복구하고 화입식을 하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4월말까지 제1호전기로, 1949년 4월에는 제2호전기로와 제3호전기로를 각각 완전히 복구하였다.

평양화학공장의 인조섬유-스프생산공정을 복구하는것도 해방후 화학공장복구에서 중요한 대상의 하나였다. 그것은 해방후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서 평양화학공장의 스프생산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7년 3월 30일 평양화학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공장의 복구공사를 다그쳐 질 좋은 인조섬유를 생산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그후 1948년 2월 9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2차회의 교시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도 평양화학공장을 빨리 복구하여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아안은 평양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새 민주조선의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스프생산공정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일본놈들이 도망치면서 주요 직장들을 불태워버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1945년 9월 10일에 제1련탄직장을 복구한데 뒤이어 제2련탄직장, 합판직장, 류산동직장, 류황합제제조직장, 류산직장 등 스프생산공정과 련관된 전반적공정들에 대한 복구를 1947년 4월 15일전으로 끝내였다.

그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1947년 12월 21일

부터 스프생산공정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 스프생산공정의 첫단계는 원액계통이었다. 원액계통의 복구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없는것은 창안하고 부족한것은 폐품 혹은 매물 되었던 유탄자재를 회수리용하면서 자재와 부속품을 해결하였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매일 150%이상 높임으로써 분쇄실, 숙성실을 비롯한 원액계통의 여러 공정들을 성과적으로 복구하였다.

스프생산공정에 대한 복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이 공정의 심장부라고 말할수 있는 방사직장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파괴책동으로 쓸수 있는 방사기는 거의 없어 새것으로 바꾸거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기술자도 자금도 자재도 모두 부족하였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로동자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우수한 기술자가 오기만 기다릴수 없다. 오직 우리의 창의와 노력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해나가자.》라고 하면서 매일 아침 30분동안 기술전습회를 진행하고 서로 기능들을 배워나감으로써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갔으며 낡은 부속품을 회수하기 위한 운동을 벌려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였다.

마침내 원액, 방사 계통을 비롯한 전반적인 스프생산공정들이 복구되고 1948년 8월 11일에는 성대한 조업식을 하게 되었다. 조업한 평양화학공장은 일산 13톤의 스프생산능력을 가진 방사직장을 비롯하여 18만평방미터의 부지에 10개의 생산공정과 24개의 품종별 생산직장들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학공장의 하나로 되었다.

공장조업식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고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었으며 85명의 모범로동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평양화학공장 스프생산공정의 복구는 우리나라의 원료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푸는데서와 경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닦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었으며 특히 복잡한 화학반응공정으로 이루어진 스프생산공정을 복구해냄으로써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화학공장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액체연료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운수부문에서는 더 많은 액체연료를 요구하고있었다.

액체연료문제를 푸는데서 인조석유공장과 원산석유공장에 대한 복구가 중요하였다.

어느 한 인조석유공장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하여 건설한 공장으로서 석탄을 기본원료로 하여 주로 중유, 경유, 휘발유의 원료인 메타놀과 그밖의 여러가지 화학제품들과 원료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공장도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이로 부터 공장복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공장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스발생로와 산소분리기였다.

공장복구공사에 참가한 이곳 로동계급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의 의를 가진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1948년 6월 6일 어느 한 인조석유공장에 대한 현지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사회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뭍소 이 공장 로동자들을 찾으시여 자리를 같이 하시고 공장복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빨리 복구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처럼 뵈고싶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가까이 모신 끝없는 행복감으로 하여 이곳 로동계급은 복구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불같은 결의로 가슴불태웠으며 공장복구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산소분리기복구공사는 가스발생로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선행공정으로서 산소분리기를 복구하여 산소를 먼저 생산하여야 가스발생로복구를 앞당길수 있었으며 가스발생로를 건설한 이후에도 메타놀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수 있었다.

산소분리기복구공사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진동이 심하여 산소 생산에 지장을 주었던 팽창기의 기초콘크리트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진동을 방지하는 등 공사를 적극 다그침으로써 순도 98%의 산소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가스발생로복구공사는 원료수송설비와 전기가설공사를 비롯한 10여개 부분의 공정들을 복구해야 하는 공사로서 여기에는 수많은 자재와 연 5만 3,262공수의 로력이 소요되었으며 그가운데서 75% 이상은 기능로동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자재부족과 함께 기능공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공장에서는 부족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군중적인 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1만 3,900여대의 련와와 수많은 철재들을 수집하였으며 매일 기술학습과 기술전습회를 진행하여 기능공의 부족도 극복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에 고무된 로동계급들은 그후 29명의 청년들로 가스발생로복구건설진격대를 조직하고 철야전투를 벌려 매일 작업과제를 200%이상 해제졌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말에는 기본건축공사를, 1949년 10월초에는 미진된 기계설비조립공사까지 완공함으로써 가스발생로 화입시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1950년 2월 7일에는 메타놀을 생산하게 되었다.

가스발생로가 복구됨으로써 일제시기에는 한시간당 1,000톤의 석탄으로 1만립방미터의 메타놀원료가스밖에 생산하지 못하던것을 60%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200톤의 석탄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량의 가스를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 순도도 일제시기보다 5%나 더 높은 92%에 달하게 되었다. 인조석유공장의 조업은 새 민주조선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였다.

인조석유공장의 조업은 산업운수부문에서 많이 쓰는 연료문제와 농업 및 보건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소독약, 각종 도료생산용 원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원산석유공장의 로동계급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7년 1월 19

일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주신 가르치심과 1948년 1월 국영기업소 지배인, 기술자들과의 담화에서 원산석유공장을 년내로 복구하여 생산을 시작할데 대한 교시를 받아안고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여 당시 제일 큰 애로의 하나로 되어 있던 액체연료와 기계유들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은 제염소들과 팔프공장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귀성제염소의 로동계급들은 불타는 건국열의를 안고 일제가 파괴한 외곽제방과 제염설비들에 대한 보수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길주팔프공장의 로동계급들은 팔프와 알콜 생산설비들을 복구하고 1947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드높은 건국열의에 의하여 일제가 혹심하게 파괴한 화학공장들에 대한 복구정비사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반적화학공업발전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2. 화학공장들의 확장과 새로운 화학공장건설을 위한 투쟁, 국영제약공업의 창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2개년계획기간에 아직 채 복구하지 못한 공장, 기업소들을 완전히 복구하고 지금 돌아가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더욱 확장하며 필요한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 건설하여 우리 나라 공업의 부문구조를 일층 완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4권, 497~498페이지)

화학공장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화학공장들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고 부문구조를 일층 완비함으로써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면모를 갖추는데서와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

는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9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와 같은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우리나라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존 화학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이미 있는 화학비료생산공정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료생산공정을 건설하는것이였다.

화학비료생산을 늘여야 알곡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풀수 있고 화학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할수 있었다.

화학비료생산공정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화학비료의 품종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여러가지 비료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수화학공장의 실태를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청수화학공장에 우리나라의 무진장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석회질소비료공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청수석회질소비료공장을 건설하는데서 나선 가장 큰 난관은 기술자와 기능공이 없고 기계부속품이 부족한것이였다.

하지만 이곳 로동계급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장에 불과 몇명 안되는 기술자와 기능공들로 기술기능진습을 진행하여 우수한 제관공들을 키워냈으며 모자라는 부속품은 유후자재들을 회수하여 자체로 가공하여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말까지 건평 2,052평방미터에 높이 23미터의 기본건물공사를 끝냈으며 1949년에는 질화로 8대, 분쇄기 4대를 비롯한 수많은 기계들을 설치하고 1950년 상반기에 생산공정건설을 완공하였다.

청수석회질소비료공장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화학비료구성에서 석회질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화학비료공업의 다면성이 더욱 보장되게 되였다.

화학비료생산공정들을 신설하는데서 중요한 대상은 흥남비료공장의 집축류산공정과 초안초산공정 및 4,000마력압축기 신설공사였다.

흥남비료공장에서 진행된 집축류산공정과 초안초산공정, 4,000마력압축기 건설공사는 화학비료생산능력을 높여 일산 75톤의 암모니아와 300톤의 류안비료를 증산할수 있게 하는 방대한 공사대상들이었다.

집축류산공정은 건평 1,300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일떠세우고 그 내부에 배소로실, 희류산실, 예열기실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추어야 할 공사로서 1948년 7월에 착공하여 1949년 5월에 완공되었다.

집축류산공정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류산을 생산하여 화학비료생산과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농류산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

초안초산공정은 총공사비 1억만원을 투자하여 1951년 12월까지 끝낼것을 예견한 대상으로서 이곳 로동계급들의 투쟁에 의하여 1950년 6월까지 많은 전진을 가져왔으나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4,000마력압축기신설공사는 1949년 1월부터 착수하여 7월까지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흥남비료공장에서는 그밖에도 축전지직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축전지직장은 교통운수부문과 통신부문에 요구되는 축전지를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큰 규모의 건설대상이었다. 이 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목공실, 건조실, 기계실, 류산정밀실, 조액실 등 여러 공정들을 짧은 기간내에 일떠세워야 하였다.

이곳 로동계급들은 지하에 파묻혀있던 적련와 2,300여대를 회수이용하고 볼트미리제작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매일 150%이상의 능률을 올리면서 1949년 5월말까지 신축공사를 끝내었다.

종이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종이공업의 식민지적편

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인 종이공업의 토대를 쌓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전국적범위에서 문맹퇴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해마다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난 조건에서 종이문제를 푸는것은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1948년도에만 하여도 성인학교수는 1,250개, 성인중학교는 120개, 한글학교는 3만 3,000개, 인민학교는 3,236개, 초급중학교는 686개, 고급중학교는 134개, 전문학교는 50개, 대학은 8개로 늘일것이 예견되어있었으며 각종 교과서만 하여도 830만부나 발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신의주와 길주, 회령밖에 없었으며 그것마저도 편지봉투와 학생들의 학습장, 약간의 사무용지나 생산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급격히 늘어나는 신문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담배지를 비롯한 종이의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이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이 공장들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1946년 3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시급히 종이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1948년 6월 8일에는 몸소 길주팔프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지도에서 먼저 초지기부설공사를 찾으시고 초지기부설공사를 빨리 끝내여 신문용지를 국내산으로 해결하며 양면지를 생산하여 각종 출판물발간에 필요한 종이를 이 공장에서 책임지고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없는 감격에 휩싸여있는 이곳 로동계급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헤아리시여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수십명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수많은 기대와 설비들을 보내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크나큰 배려를 받아안은 길주팔프공장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종이직장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졌으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50여미터의 목편 저장로 2대를 증설하는데서 보루에 의한 미끄럼식작업방법을 도입하여 종전보다 작업속도를 10배이상 높였으며 쇄목직장건설에서는 80여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고 1만 2,000여원의 리익을 주면서도 수압식쇄목기 4대를 성과적으로 증설하였다.

목편저장로 건설자들은 계속 혁신하여 새로운 미끄럼식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작업능률을 12배로 높였으며 설비조립을 담당한 노동자들은 확대식조립비중을 80%이상 높임으로써 설비조립속도를 2배이상 높이였다.*

* <주체적인 종이공업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년, 22페이지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락엽송을 원료로 하여 하루에 30톤의 질 좋은 양지를 생산할수 있는 제지직장건설이 1949년 4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생산을 시작하였다.

신의주팔프공장에서 종이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신의주팔프공장 노동계급은 종이생산능력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받들고 크라프트지를 비롯한 종이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크라프트지생산공정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아마와 삼송을 원료로 하여 년산 800톤의 포장지를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3,168평방미터의 건물공사와 기계설비들을 조립해야 하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대상이었다.

이곳 건설자들은 건국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계획보다 14.3%의 자금과 38%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계획된 공사를 1949년 8월하순까지 앞당겨 끝내였다.

이처럼 길주와 신의주 팔프공장들에서 종이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려놓음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종이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되었으며 자립적인 종이공업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

였다.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국영제약공장들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일제가 조선에 부식한 화학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는 합성화학약품생산의 토대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빨간약, 아스피린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제약공업실태를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1947년 2월 19일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에서 한 보고를 비롯한 교시들에서 국영제약공업을 창설하며 그 첫 대상으로 홍남에 제약공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학부문 로동계급은 《우리의 약은 우리의 손으로!》라는 구호밑에 홍남제약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건국제약, 화학공업소 등을 개건확장하여 국영제약공장을 창설하고 그 생산을 부쩍 늘여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국가는 국영제약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약생산 원료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제약에 경험있는 기술자와 로동자들을 건설장들에 보내주었으며 각 정당,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국영제약공장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약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공장, 기업소들에 제약직장들을 내오며 원료조건이 해결될수 있는 지역들에 제약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국영제약공장창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홍남의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우리나라 국영제약공장건설을 위한 첫 전투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으며 애국로동의 구슬땀을 남김없이 바치였다. 그리하여 1947년도에 홍남제약공장건설을 끝내고 1948년 5월에는 또다시 아스피린직장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300리터의 약초제제를 생산할수 있는 제약직장도 꾸렸다. 이외에도 평양곡산공장 제

약공장, 평남제약공장, 평남건국제약, 화학공업소가 개건확장되었으며 서선필수품공업소, 21제약, 동우제약, 조선제약공업회사가 신설되었다.*

* 《조선보건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45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영제약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1950년 상반기현재로 공화국북반부에는 홍남제약공장을 비롯하여 평양, 신의주, 청진 제약공장 등 20개의 제약공장이 일떠서 국영제약공업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해방후 우리 인민의 손으로 일떠세운 이 공장들에서는 합성화학약품과 약초제제 등 60여종의 긴요한 의약품을 생산하였다.*

* 우와 같은 책, 459페이지

화학공장들을 확장하며 신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는 그밖에도 산업성 홍남연구소 기술일군들의 창발적인 투쟁에 의하여 염료공장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영안화학공장의 포르말린생산공정건설이 완공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하고 그것을 더욱 확장하며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하였던 생산공정들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적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현저히 퇴치되고 부문내부구조가 개선되어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제3절. 과도기 첫시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

1. 1947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경제 계획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화학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947년인민경제발전계획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닦는 방향에서 파괴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복구를 실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목적밑에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7년에 화학공업이 또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농산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화학비료의 생산에 큰 관심이 돌려질것이며 그 생산량은 1946년에 비하여 거의 두배로 높아져 30만톤에 이르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3권, 9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1947년도 화학공업부문의 전투적과업은 화학비료를 비롯한 화학제품을 빨리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줌으로써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인민경제의 복구를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과업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7년 2월 19일 북조선 도, 시, 군 인민 위원회대회와 1947년 5월 1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6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1947년도 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근로자들의 양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증산경쟁운동을 광범히 조직하고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맹퇴치운동과 기술보급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화학공업부문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첫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였다.

화학공업부문의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속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반드시 실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하며 그에 기초하여 높은 애국심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발적인 투쟁은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통해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결정적으로 뿌리베고 새 민주조선의 주인다운 사상과 도덕풍모를 배양하기 위한 일대 사상혁명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자들속에서 새 조국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12월 3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를 여시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방침을 지침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청산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벌리며 이 운동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여기에서 각급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낡은 사상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혁명실천과 결합하여 더욱 힘있게 벌렸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학습회와 토론회, 독보회, 강연회, 기념보고대회, 조직별 회의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학습과 토론은 주에 1~2차이상

씩 휴일이나 하루 로동이 끝난 다음 당세포들과 각급 초급단체조직들에서 진행하였으며 독보회는 작업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조직된 독보반별로 매일 아침과 저녁 또는 휴식시간에 진행하였다.

학습과 토론 및 독보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깊이 학습하며 그 구현인 당정책들을 로동자들속에 깊이 침투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강연 및 보고대회들은 주로 기념일을 계기로 당조직의 지도밑에 직업동맹단체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조직별 회의들과 직장회의들은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었다.

흥남비료공장에서는 학습회와 토론회에서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1947년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보고와 연설들을 학습하였으며 《로동신문》과 지방신문들을 가지고 매일 작업시작전에 독보하는 기풍을 세워 로동자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제때에 알도록 하였다.

순천화학공장에서는 1947년 1월 한달동안에만도 23개의 세포에 1년 7,374명의 참가밑에 394회의 학습회와 독보회를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 《로동신문》 1947. 4. 13

본궁화학공장 당부와 직맹에서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와 8.15해방 2주년을 비롯한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강연회와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로동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

1947년 1월 14일에 진행된 흥남비료공장 당부공작과 제2차공개 세포총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적극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생산계획을 완수하려면 전직공들이 고상한 민족사상과 끊임없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조국에 바쳐야 한다. 자기만을 알고 사치하기를 일삼고 국가재산을 좀먹는

일제 사상은 우리 머리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리하여 부지런히 일하여 우리 공장을 지키자.》*

* <로동신문> 1947. 1. 24

평양화학공장 류산직장 당세포에서는 일제의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기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려 모두다 새 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품모를 겸비해나갔다.

사상교양사업은 좌담회와 직관선전사업을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좌담회는 모범로동자들과 혁신자들의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일반화하는데 중심을 두었으며 직관선전은 표어와 벽보를 통하여, 예술선전은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악단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신의주팔프공장에서는 직장별로 매일 2회이상의 좌담회를 조직하였으며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300여명의 기능공들이 정상적으로 모여 좌담회를 자주 조직함으로써 우수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평양화학공장 당세포들에서는 직관선동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매일 2회이상씩 벽보를 발간하며 수많은 표어들을 써붙임으로써 로동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1947년도 한해동안에 509회의 음악공연, 20회의 연극공연, 59회의 무용공연을 조직하였으며 영화들을 정상적으로 상영하고 매일 출퇴근때마다 로동자들을 고무하여 화학제품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처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속에서는 새 조국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이 비상이 높아지고 경제건설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발현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첫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긴장한 로력과 모자라는 원료, 자재 그리고 파괴된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역

할을 하였다.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은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 것이었다. 많은 로동자들과 청년들이 일제의 《징병》과 《징용》에 끌려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조건에서 공장복구를 진행하면서 당면한 화학제품생산계획을 동시에 수행하자니 로력이 엄청나게 모자랐다.

홍남비료공장의 경우만 보아도 로력부족률이 11%나 되었는데 그 중 기술자는 36%, 기능자는 21%, 보통 로동자는 8%나 되었다.*

* <로동신문> 1947. 12. 31

긴장된 로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출근률을 높이고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출근경쟁을 진행하여 결근, 지각, 조퇴를 없애고 비생산로력을 최대한으로 줄이며 8시간로동시간을 엄격히 지키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종업원전체를 《갑》, 《을》 두편으로 갈라 파와 파, 반파 반, 조와 조, 개인과 개인 사이에 경쟁을 체결하고 승리한 편에는 상을 수여하였으며 가장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서는 우승기를 수여함으로써 전체 종업원들의 출근률을 3.4분기의 94.6%로부터 10월에는 95.2%, 11월에는 97.8%, 12월에는 98.9%로 높였다.

결과 로동생산능률이 나날이 장성하여 공장의 기본제품인 류안비료생산은 1.4분기에 비하여 230%로 장성하였다.*

* <력사과학논문집> 9권, 16페이지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사무원을 8.6%로부터 5.7%로 축소하고 포화기작업에서 교대당 2명을 축소시킨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부족되던 로력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총체적으로 172%로 올리였으며

그중 홍남비료공장에서는 163% , 본궁화학공장은 206% 기타 공장들에서 159~196%로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부족되던 기술자와 기능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학교와 기술장좌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전습제를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1947년 한해동안만 하여도 홍남비료공장에서는 2명의 기술자, 141명의 고급기능자, 861명의 기능자들을 양성하였다.*

* <로동신문> 1947. 12. 31

긴장된 로력문제와 함께 부족되는 원료, 자재, 설비 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당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어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원료, 자재, 설비의 부족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는 오직 로동계급들 자신이 새 민주조선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 때만이 해결될수 있었다.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부족되는 원료를 이미 쓰던 원료소비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대용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었다.

남포화학공장에서는 류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인 액체암모니아문제를 풀기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여 적은 원료를 쓰면서 류산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의극에서 재대에 들어오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받던 린광석대신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린회석을 쓰게 함으로써 린함유량을 20%로부터 27%로 높이면서도 린비료를 계획대로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부족되었던 자재와 설비는 일제놈들이 빼돌렸거나 지하에 감춘 것들을 찾아내고 각처에 산재된 물자들을 수집하며 폐품으로 된 기계설비들을 보수 및 개조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본궁화학공장 공작과에서는 일제놈들이 도망치면서 감추어놓았던 전동기 3대와 9대의 권양기, 많은 량의 기계류들을 찾아내고 폐품회수운동을 광범히 벌려 1,252대의 차륜사푸트, 811개의 차륜,

802톤의 산형강, 25톤의 판류, 80톤의 평철, 53톤의 환철을 수집함으로써 부족되었던 자재와 설비 문제를 해결하였다.

평양화학공장 류산직장에서는 왜놈들이 파괴한 기계분쇄기를 복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였던 《특수펌프》를 수리하여 설비의 부족을 타개하였으며 흥남비료공장 류안과에서는 수명이 짧고 자주 끊어지므로 비료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던 벨트레싱구를 개조함으로써 설비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이 로동계급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생산과 건설의 기본요소인 로력, 설비, 자재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어나갔으며 이에 따라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한 사상개조사업이 가져다준 결실이였으며 새 조선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결정적담보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첫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중적인 증산경쟁운동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하시였다.

〈...증산경쟁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증산경쟁을 조직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절실히 필요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3권, 199페이지)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였다.

증산경쟁을 잘 조직하고 생산돌격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생산에서 앞선 단위와 모범적인 사람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고무해주며 긍정적인 모범을 통하여 뒤떨어진 단위,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생산에서 더 큰 집단적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이것은 또한 당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에서 집체적 지혜와 힘을 합쳐 증첩되는 난관을 헤쳐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증산경쟁운동이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1947년 3월 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0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증산경쟁운동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장, 기업소 호상간, 공장내에서 부문과 부문간 그리고 부문내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증산경쟁을 민주주의적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자각성에 호소하여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증산경쟁운동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1946년 4월 17일 흥남비료공장 노동자들앞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 <새 조국 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였다.

1946년 2월 15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로동영웅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연설에서 새 조국 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기계설비들을 잘 관리하며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력적교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킨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1947년도에 화학공업부문에서 진행된 증산경쟁운동은 주로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하여 매달 련속적으로 벌어졌다.

그것은 1947년 1~2월중순까지 진행된 신년생산경쟁운동과 3월 1일부터 월말까지 진행된 선거경축 및 3.1절기념 증산경쟁운동, 4~5월에 진행된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 6월에 진행된 로동법령발포 1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 9~11월에 진행된 9~10월계획완수 및 년간계획기간 단축운동, 11월하순~12월말까지 진행된 년말증산경쟁운동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벌어진 1947년도 증산경쟁운동가운데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증산경쟁운동은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과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이었다.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은 전세계 로동계급들의 국제적명절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려는 근로자들의 애국운동이었다.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을 벌릴데 대한 평양철도기관구 로동계급들의 호소에 호응한 순천화학공장 로동계급들은 4월 15일 결기회의에서 1.4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인 카바이드 1,700톤, 석회질소비로 690톤, 산소 4,500키로립방메터, 생석회 1,700톤 등 화학제품들을 생산할것을 결의하고 증산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이 운동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을 설비를 개조하고 새로운 창안들을 내놓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4월 30일전으로 8만 7,000톤의 화학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10일간이나 앞당겨 4월 20일까지 끝내었으며 계속하여 4월 30일까지는 4월계획을 류안비료는 113%, 류산은 112%로 넘쳐수행하였다.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은 화학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황해도의 모든 화학공장들은 5월 1일까지 진행된 1차 들격주간에 계획을 130.5%로 초과수행하고 5월 13일까지 진행된 제2차 들격주간에는 해주제지공장이 192%로 계획을 넘쳐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에서는 전국적으로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이 첫 봉화를 들었다. 이곳 로동계급은 7월 9일 증업원대회를 열고 전국의 공장, 광산, 탄광들에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문을 올리였다.

호소문에서는 증산돌격기간을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하며 1개월간에 류안비료 4,950톤을 더 생산하여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11월말까지 앞당겨 완수할것을 결의하면서 《...8.15를 더욱

단결된 힘으로 힘차게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하실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적감격을 새롭게 하는 8.15를 증산돌격운동으로서 기념할것을 호소하는바입니다.》* 라고 지적하였다.

* <로동신문> 1947. 7. 12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의 호소는 전국의 로동계급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7월 11일에는 평양곡산공장과 서평양철도공장에서, 7월 12일에는 평양제사공장들에서 그에 호응하는 쉼기대회들이 련이어 진행되었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일별로 생산실적과 출근률을 총화하고 부족점들을 제때에 퇴치하여 생산성과를 계속 높여나갔으며 본궁화학공장에서는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기능공들이 무기능공들을 맡아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임으로써 더 많은 카바이드, 석회질소, 생석회 등을 생산하면서 그의 질적수준도 훨씬 개선하였다.

길주팔프공장의 로동계급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기계설비들을 알뜰하게 관리하여 석탄보이타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수많은 석탄을 절약하였다.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은 다른 공장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신의주팔프공장은 생산계획을 189.8%로 넘쳐 수행하였다.

홍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에서의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의 총화자료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홍남비료공장 (%)		본궁화학공장 (%)	
류안비료	200.4	카바이드	109.2
연전극	156.9	액체가성조달	102.8
출근률	97.1	출근률	97.1

* <로동신문> 1947. 8. 20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공장들에서는 기본생산지표들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특히 가장 높이 세웠던 류안비료의 생산목표는 2배나 초과수행하였다. 이것은 8.15해방 2주년기념 증산경쟁운동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는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1947년도의 증산경쟁운동은 공장과 공장은 물론 직장과 직장, 작업반과 작업반,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지방적범위에서 생산적련관성이 깊은 공장, 기업소들사이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길주팔프공장 로동계급은 직장과 직장, 반과 반사이는 물론 련관된 공장인 청진방직공장 로동계급들에게 5.1절기념 증산경쟁운동을 호소하였으며 본궁화학공장에서는 4월 11일에 카바이드계, 석회질소계, 합성계 사이의 삼각경쟁을 체결하고 4월 21일에는 카바이드계, 석회계, 연탄계 사이의 경쟁을 호소하였다.

특히 홍남비료공장에서 호소한 삼각경쟁은 전국의 로동계급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2월 20일 오후 로동회관에 모여 종업원들 기대회를 가지고 철도종업원들에게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수송하여 주며 농민들은 가마니와 새끼를 충분히 보장해줄데 대한 호소문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3월 7일에는 함흥철도부산하 종업원들과 함흥벌의 농민들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삼각경쟁이 체결되었다.

삼각경쟁의 대상인 홍남비료공장과 함경남도 광산들, 함흥철도부산하 대표들은 4월 20일 홍남비료공장에서 련환모임을 가지고 삼각경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의조항들을 발표하였다.

- ① 삼각경쟁지도위원회를 조직할것.
- ② 경쟁운동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지도검열하여 각 직장의 난관을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책을 상호협조할것.
- ③ 경쟁운동의 진행상황을 그때그때에 널리 선전하여 각 직장

의 경쟁심을 고취할것.

④ 경쟁운동을 각 공장과 공장간에, 광산과 광산간에, 각 파와 파간에, 계와 계간에, 개인과 개인간에 삼각경쟁을 결부시켜 각각 상대방의 부분 또는 직장의 성과를 자기 직장에 비교하는 그래프를 작성하게 할것.

⑤ 수시로 경쟁상대방의 사업을 연구토론하여 상호간의 우의적 협조를 구체화할것.

⑥ 상호간의 유무상통과 경험의 교환 또는 로력응원대조직 등으로 가장 곤란한 자재난과 기술난을 극복할것.*

* <로동신문> 1947. 4. 27

우의 결의조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시기 증산경쟁운동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힘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었다.

홍남비료공장과 함흥철도관리국, 함남도내 광산 대표들의 결의는 자기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그들을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참으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증산경쟁운동은 그 형태와 방법, 내용과 심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여 수많은 기술혁신안을 내놓게 하였다.

그리하여 순천화학공장에서 석면혼수주판기를 창안제작하여 카바이드생산을 정상화하고 길주팔프공장에서 석탄보이라의 고무샤다를 개조하여 증기생산량을 늘이며 평양화학공장에서 류산생산설비를 보다 완성하여 류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1947년도 화학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7.3%로 초과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여야 할

니다.

오늘 기술을 보급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나 강습소에서 기술자를 양성할뿐아니라 로동자들이 실지 일터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잘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3권, 200 페이지)

로동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요구로서 1947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였다.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생산과 건설의 계반 원리들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실천에 옮길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되어있는 화학공장들에서 생산을 원만히 할수 있다.

특히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화학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차 화학공업의 발전과 특히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1946년 2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와 1947년 3월 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0차회의에서 로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면하게는 문화계몽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성인들의 문맹을 퇴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동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문맹을 퇴치하는것은 당시 로동계급속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다. 일제의 악

특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사람의 절대다수는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채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이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230여만명의 문맹자가 있었으며 흥남비료공장을 포함한 흥남지구인민공장들에는 1947년초까지만 하여도 로동자 2만명가운데서 63.2%에 달하는 1만 2,650명이 문맹자였다.

그러므로 문맹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일수 없었으며 건국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화학공업부문의 각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새 조국 건설의 주인이 되고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글과 현대적인 기술을 잘 배워야 한다는것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을 문맹퇴치운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문맹퇴치운동은 주로 한글학교와 성인학교들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흥남비료공장에서는 11개의 성인학교와 677개의 한글학교를 설치하고 매일 작업후와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우리 글을 배우게 하였다. 이 과정에 일부 녀성들속에서 《글은 학교에 가서 배워야지 일하면서 어떻게 배우겠는가.》라고 하면서 문맹퇴치사업을 달가와하지 않는 현상들을 해설과 설복으로 꾸준히 교양하여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흥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은 《아는것이 힘이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라는 구호밑에 문맹퇴치운동을 활발히 벌려 1947년 한해동안에 문맹자 1만 2,650명가운데서 6,439명이나 퇴치하였다.*

* 《로동신문》 1948. 1. 27

평양화학공장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이를, 우리 글 배우는 시간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짧은 기간내에 100여명의 문맹자들을 퇴치하였으며 청진성냥공장에서도 100여명의 로동자들로 성인학교와 한글학교를 운영하여 그들이 문

맹퇴치는 물론 생산목표달성에서도 모범이 되게 하였다.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문맹퇴치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성인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인민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의 지식을 소유할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파괴된 공장파 기업소를 전면적으로 복구하고 새로운 화학공장들을 일떠세우며 그를 성과적으로 운영해나갈수 있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주로 공장, 기업소 또는 직장 단위별로 조직된 '강습소', 기술학교, 기술강좌, 보습반, 기술전습반, 기술견습반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강습소와 기술학교, 기술강좌, 보습반들에서는 기계의 동작원리를 비롯한 기술기초이론들과 전문기술들을 배워주었으며 기술전습 및 전습반들에서는 로동안전규정, 기대의 표준조작법,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동생산능률, 새로운 창안과 발명 및 그 도입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홍남비료공장을 비롯한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기술학교, 기술강좌, 강습소, 보습반을 조직하고 그것을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1947년 한해동안에 18명의 기술자격시험합격자, 430명의 고급기능자시험합격자, 166명의 기술자자격인증등용자, 2,500명의 기능자자격인증등용자를 양성하였으며 홍남비료공장에서만 하여도 141명의 고급기능자시험합격자, 861명의 기술자시험합격자, 107명의 기능공을 길러냈다.*

* 《로동신문》 1947. 12. 31

청수화학공장에서는 기술전습반과 기술견습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많은 기능공들을 양성하였다.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이 부단히 높아짐으로써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던 기술적문제가 점차

관리되게 되었으며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복구하고 자체로 공장을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져 홍남비료공장을 포함한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29개소의 문화구락부를 설치하고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음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정상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으로서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들이 극복되고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1947년인민경제계획은 해방된 조선인민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 빛나게 넘쳐수행되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4권, 73페이지)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화학공업총생산액계획은 107.3%로 초과수행되었으며 그것은 1947년도 국영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2.5%로 넘쳐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화학공업의 장성속도도 비상이 높아져 1947년에는 1946년에 비하여 142.6%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가운데서 화학비료는 195.2%, 가성소다는 139.9%, 카바이드는 217%, 류산은 203.5%, 다이아마이트는 2배로 높아졌다.*

*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354페이지, 1953년, 533페이지

1947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복잡한 생산공정으로 되어있는 화학공장들을 자체의 힘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경제계획을 능히 완수할수 있다는 신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은 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위대한 힘과 창조적재능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난관도 능

히 극복하고 건국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은 물론 우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2.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기 위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

첫 인민경제계획인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신심도 드높이 1948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지난해실적보다 생산을 43% 늘일것을 예견하였는데 그가운데서 화학비료의 생산은 33만 2,000톤에 이르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카바이드, 가성소다를 많이 생산하며 비누생산은 지난해실적에 비하여 3.9배로 늘일것입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물감과 의약품들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4권, 87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생산을 전면적으로 빨리 늘이고 원가를 낮출데 대한 1948년도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화학제품생산을 1947년에 비하여 43% 높이며 그중 화학비료생산을 33만 2,000톤에 이르게 하는것을 비롯한 주요 화학제품생산계획을 명확히 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8년 1월 12일 력사적인 로작 《우리는 이해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할것인가?》와 1948년 2월 9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한 보고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투쟁에서의 당단체들의 과업》을 비롯한 일련의 연설들에서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1948년 7월 2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71차회의에서 한 결론》에서는 상반기계획실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1948년 2월 22일 홍남지구인민공장, 1948년 5월 31일 기양화학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것을 비롯하여 이 해에 길주팔포공장 등 수많은 화학공장을 몸소 찾으시고 1948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을 고무하시고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1948년도 화학제품생산목표와 그 수행방도 그리고 몸소 진행하신 현지지도는 화학공업부문에서 두번째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었다.

1948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진행된 증산경쟁운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총화하시고 이미 쟁취한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높은 애국심을 발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순천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1월 3일 김일성장군신년사보답증산운동을 벌릴것을 말기하고 《1948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14일간을 <김일성장군신년사보답증산주간>으로 결정하면서 우리의 증산계획을 어떠한 곤난이 있더라도 이를 뚫고 나아가 절대로 초과달성할것을 1948년의 출발에 있어서 장군님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라고 결의하였다.

* 《로동신문》 1948. 1. 9

위대한 수령님께 맹세다진 순천의 로동계급은 기계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며 무사고운전을 보장함으로써 카바이드와 석회질소비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완수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제2차당대회를 계기로 진행된 증산돌격운동은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것으로서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1월 5일부터 당세포결산선거와 직장별 대회들을 진행하고 당대회를 증산돌격운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총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결산선거와 직장대회들에서는 기계의 운전을 정확히 하고 물자들을 절약하며 출근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각 계들사이의 경쟁을 체결하고 증산돌격전을 전개할데 대한 문제들이 결정되었다.

순천화학공장과 홍남지구인민공장 로동계급들의 뒤를 따라 평양, 청수, 영안 등 화학공장들에서도 제2차당대회를 증산으로 보답하기 위한 총성의 결의들을 다지고 그 실현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마침내 긴장한 1월분 생산계획을 완수한 공장, 기업소의 대렬이 늘어나 홍남지구인민공장들에서는 1월말까지 류린안계획을 115.5%, 화장비누는 127.5%, 카바이드는 121.4%, 석회질소비료는 107.9%로 넘쳐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던 1948년 2월 22일 홍남지구인민공장의 1만여명의 로동자들앞에서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자기 손으로 복구한 공장들을 훌륭하게 관리운영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내에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며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매개 직장파 작업반 그리고 매 로동자들이 자기의 책임량을 레외없이 넘쳐수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리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열려져있으며 승리는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자유독립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호소는 모임에 참가한 로동계급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일으킨 전투적 기치였다.

하기에 모임에 참가한 전체 로동계급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

신 자리에서 《우리는 로동계급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계급적각성과 승리의 자신심을 더욱 높이며 항상 민주조국창건사업의 선두에서 인민의 정권, 인민위원회를 보다 힘차게 받들어 당신이 가리키는 길로 불덩어리가 되어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총성의 맹세를 삼가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강령적교시에 접한 홍남지구인민공장 로동계급은 1948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공장구내의 곳곳에 설치된 게시판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기어이 철저히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로동자들의 결의문들이 나붙어있었다.

홍남비료공장 류안계의 한 로동자는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연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조국창건의 주력군이라고 하신 말씀에 새로운 자신과 자부를 가졌으며 끝까지 나의 책임진 부분에 능통한 기술자가 되어 금년도 책임량을 넘쳐 실행하겠다.》*고 썼다.

* 《로동신문》 1948. 2. 26, 2. 29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아안은 이곳 로동계급들은 총성의 열의로 들끓었으며 23일에는 청년들이 모여 민청원련석회의를 열고 로동생산능률을 120% 더 높일 총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홍남지구인민공장 로동계급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총성의 맹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류안비료의 생산에서만 하여도 현지지도 이전보다 매일 평균 129%의 생산실적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3월 20일 홍남비료공장에서는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한달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종업원결기대회를 가지고 전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한달 앞당겨 11월 30일까지 완수할데 대한 홍남지구인민공장 로동계급의 호소는 키다란 파문을 불리일으

키면서 전국에 확대되었다.

3월 23일에는 평양철도부산하 종업원들과 삼신탄광, 평양전기제강소, 평양기구제작소, 남포제련소, 3월 24일에는 기양화학공장과 귀성제염소, 3월 25일에는 광량만제염소의 로동계급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북반부의 1,490여개 공장, 기업소의 28만 8,000여명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한달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게 되었다.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은 쉼기대회이후 과와 과사이, 계와 계사이, 개인과 개인사이의 호상경쟁을 체결하고 480분로동규률을 강화하며 기대 복구 및 보수 작업기간을 단축하고 설비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매일, 매일, 매 교대별로 책임량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은 제염부문 로동계급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광량만제염소의 로동계급들은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년간소금생산계획을 8월말까지 앞당겨 수행할것을 결의하고 그 실천투쟁에 떨쳐나섰다.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1947년 4월 28일 광량만제염소에 대한 현지지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염부군》으로 천시받으며 험한 일을 하여온 이곳 로동계급들을 몸소 찾으시여 맨손, 맨발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새 조선 건설이 아무리 어려워도 로동자들에게 고무장화와 고무장갑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무엇보다도 로동자들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소금생산을 담당하고있다는 영예감과 긍지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실도 잘 꾸리고 구호도 많이 써붙여 로동자들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힘있게 불리일으켜야 하며 로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하

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지도를 마치신 다음에도 제염소로동자들을 잊지 못하시여 한주일후에는 나라에서 긴급하게 쓰려고 하였던 참대와 고무 장화, 장갑 등 로동보호물자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극진한 배려는 이곳 로동자들과 전체 제염부문 로동계급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 일념을 안고 광량만제염소의 로동계급들은 1948년도 소금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로동자들은 구와 호간의 증산경쟁을 체결하고 매일, 매 주별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소금생산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연간소금생산계획을 8월말까지 앞당겨 완수하였다.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의 호소에 호응한 귀성제염소의 로동계급들은 인민생활향상과 화학공업발전에서 소금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일제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외곽제방을 비롯한 소금생산시설들을 완전히 복구하며 소금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각 구, 호별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염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가장 빠른 시일인 4월 4일부터 소금을 채취하였으며 5월분 계획도 23일현재 105%로 초과수행하였다.

증산경쟁운동에 떨쳐나선 신의주팔프공장의 로동계급은 초지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심어린 노력으로 하루에 3.5~4톤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화용지를 6~7톤씩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간종이생산계획을 한달 앞당겨 11월말까지 완수하였다.

영안화학공장에서는 보이라의 증기압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콤파운드생산목표를 117.5%로 초과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속

에서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본궁화학공장에서는 11월 7일, 흥남비료공장에서는 11월 26일에 각각 연간계획을 끝내었으며 뒤이어 수많은 화학공장들이 연간화학제품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고 연말까지는 화학공업부문적으로 계획을 110.3%로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 《로동신문》 1949. 1. 29

계획수행에서 주요 품종별 생산량과 그 장성비율을 보면 1948년에 화학비료 36만 9,200여톤(그중 석회질소비료 3만 2,700여톤, 류안비료 28만 8,700여톤), 가성소다 7,350여톤, 카바이드 12만여톤, 류산 26만 7,000여톤을 생산하였으며 1946년에 비하여 화학비료는 237.3%, 가성소다는 228.5%, 카바이드는 292%, 류산은 237.6%, 다이아마이트는 2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354페이지, 1953년, 533페이지

1948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이 초과완수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가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게 되었다.

3. 2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 화학제품생산 계획수행을 위한 투쟁, 주요 화학제품 생산의 해방전수준 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중심과업에 기초하여 화학공업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가성소다와 카바이드 생산을 늘이며 특히 화학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5권, 16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2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가성소다와 카바이드 생산을 늘이며 특히 화학비료생산에 힘을 넣음으로써 해방전생산수준을 훨씬 증가하는 것이었다.

1949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에서는 화학공업부문에서 해야 할 구체적과업들을 법령과 결정들로 채택하였다.

법령과 결정들에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마지막해인 1950년에 화학공업총생산액은 1948년에 비하여 176.1%, 로동생산능률은 36.5%로 장성시키며 원가는 12.4%로 저하될것이 예견되었으며 화학비료는 41만 5,600톤, 가성소다는 2만 2,000톤, 카바이드는 14만 3,000톤, 전극은 1만 4,060톤, 비누는 2,200톤, 소금은 22만톤을 생산할것이 계획되었다.*

* 《로동신문》 1949. 1. 29, 2.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9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에서 한 연설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수행은 조국통일의 물질적담보》에서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을 잘하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적창안을 발전시키며 자각적열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9년 7월 19일 제4차 산업생산하 공장, 기업소 지배인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지배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밝히시였으며 같은해 11월 19일 산업부문경제 및 직맹열성자대회에서는 이미 이룩된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 나타난 결함들을 빨리 고쳐 계획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건국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단체들이 근로인민대중속에서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이 가지는 의의를 널리 해설선전하며 당보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통하여 계획수행에서 나타난 모범적인 사실들과 좋은 경험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평양화학공장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정한 학습체계에 망라되어 학습하고 당보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을 정상적으로 독보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의 로선과 국내외정치정세를 깊이 체득하게 하였으며 매 직장별로 특성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여 사고를 없애게 하였다.

홍남비료공장 당세포선전원들은 생산현장에서 발휘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우수한 창의고안들을 비롯한 선진적인 경험들을 정상적으로 소개선전함으로써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켰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수많은 창의고안들이 나와 1949년 1.4분기계획을 101.5%로 초과완수한데 이어 4월계획은 112.5%, 5월계획은 109.2%로 초과수행하면서도 생산원가는 90.2%로 낮추었다.*

* <로동신문> 1949. 6. 19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2개년인민경제 화학제품 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조건이였다.

신의주팔프공장 보이라작업반원들은 석탄과 증기 절약에 대한 기술전습회를 매일 조직하여 톤당 팔프생산에서 석탄 682키로그램씩을 절약하였으며 목부작업반원들은 일상적인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원료 한가마를 삶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30시간으로부터 12시간 10분으로 단축하였다.

평양화학공장에서는 매주 3회이상의 기술전습회를 조직하여 1.4분기 스프생산과 2류화탄소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으며 흥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에서도 기술전습회를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1949년 3.4분기까지만 하여도 1,000여명의 기능공들을 각각 양성하였으며 화학제품의 질을 훨씬 높여 류안비료는 그 질적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설비를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설비리용률을 높여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순천화학공장에서는 기계검토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주 월요일에 로들의 상태를 점검하는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사고를 근절하고 로의 가동률을 카바이드전로는 99.8%, 석회질소로는 99.2%로 높였다.

흥남비료공장 합성부의 로동자들은 압축기들에 대한 점검보수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압축기운전률을 93% 이상, 탐운전률을 95%로 높여 1950년 1.4분기계획을 3월 20일 현재 110%로 초과완수하였다.

신의주팔프공장에서도 기계점검사업을 잘하여 무사고운전을 보장함으로써 1950년 2월분 계획을 139.5%로 완수하였으며 특히 류안비료의 원료인 류화철을 생산하는 단천광산에서는 설비점검보수사업을 잘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임으로써 1950년 2.4분기계획을 112.2%로 초과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단천광산은 내각순회우승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였다.

증산경쟁운동은 개인과 개인, 작업반과 작업반 사이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흥남비료공장 합성과 운전계 압축기작업반들에서는 1949년 3월 개인과 개인, 작업반과 작업반 사이의 경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암모니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압축기작업반의 한 로동자는 매일 자기 계획을 101.2%로 초과

수행할것을 결의하고 다른 로동자에게 호소하였다. 호응자가 1.4분기 자기앞에 맡겨진 계획을 106%로 초과수행할것을 결의함으로써 개인간 경쟁이 체결되게 되었으며 그들의 모범이 모든 로동자들속에 일반화되어 압축기교대작업반들간의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작업반간의 경쟁에서는 10일에 1차씩 호상검열을 조직하며 매일 암모니아생산계획을 101.2%로 초과수행하고 가스의 효율을 80.4%로부터 86%로 높일것을 제기하였다. 경쟁과정에 작업반원들의 출근률은 100%로 높아지고 암모니아생산은 종전보다 8.25%나 더 많아졌으며 1.4분기계획을 101.6%로 초과수행하게 되었다.

홍남비료공장에서 벌어진 개인과 개인, 작업반과 작업반 사이의 경쟁은 화학공업부문에 급속히 확대되었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 벌어진 증산경쟁운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홍남지구 비료공장과 화학공장, 단천광산, 함흥철도관리국 로동계급들의 증산경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1월 29일에 홍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 단천광산, 함흥철도관리국에서 종업원회의를 열고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벌릴것을 전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호소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모든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이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증산경쟁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성들에서는 이 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집》 5권, 385~386페이지)

홍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 단천광산, 함흥철도관리국에서는 8.15해방 5주년을 맞이하면서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초과완수할것을 결의하는 월기대회를 가지고 공화국북반부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월기대회에서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은 2개년인민경제 류안비료생산계획을 8월 26일까지 완수하고 연말까지 16만톤의 비료를 더 생산하면서 생산원가는 계획보다 5% 낮출것을 결의하였으며 본궁

화학공장 로동계급들은 2개년인민경제 카바이드생산계획을 8월 14일까지, 액체염소는 8월 26일까지 완수하고 년말까지는 22.25%의 카바이드와 17.9%의 액체염소를 더 생산하면서 생산원가는 계획보다 5.5% 낮출것을 결의하였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할데 대한 이곳 로동계급의 호소는 전체 로동계급들의 혁명적열의와 부강한 새 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기한전완수를 호소하는 그들의 발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각급 당단체들로 하여금 이들의 호소에 적극 호응될기할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급 공장당조직들에서 직장과 작업반 및 개인들의 경쟁목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락후한 직장파 작업반 및 뒤떨어진 사람들이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들의 호소를 적극 지지하면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이에 호응해나설것을 결정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직업동맹조직들의 지도적역할을 높일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쟁기대회들은 화학공업부문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련이어 계속되였다.

단천광산에서는 2월 7일 기업소종업원대회를 열고 흥남비료공장에 경쟁을 제기하였으며 흥남비료공장은 2월 9일에 단천광산 로동계급들의 호소에 호응하면서 본궁화학공장에 경쟁체결을 호소하였다.

본궁화학공장은 2월 11일에 이에 호응하는 공장종업원대회를 진행하였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호소한 흥남지구화학공장의 로동계급은 결의실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1월과 2월 카바이드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으며 흥남비료공장과 단천광산에서도 1.4분기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2개년인민경제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에 의하여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첫째인 1949년도 계획은 화학공업총국적으로 103.2%로 초과수행되었다. 그것을 품종별로 보면 화학비료는 37만 2,400여톤, 가성소다는 1만 3,300여톤, 카바이드는 12만 8,000톤, 비누는 8,700여톤, 전극은 1만 3,000여톤이 생산되고 류안비료는 113.1%, 류린안비료는 129.4%, 농류산은 111.6%, 암모니아는 110%, 천연전극은 115.7%, 세탁비누는 104.9%, 화장비누는 102.6%로 각각 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354페이지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두번째해인 1950년도에는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적지 않게 파괴되었으나 화학제품생산은 계속되어 류안비료는 32만톤, 류린안비료는 2만톤, 카바이드는 6만 9,000톤, 가성소다는 1만 5,900여톤이나 생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4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건국사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5권, 335페이지)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첫째로, 중요 화학공장들의 복구, 확장, 신설 사업이 짧은 기간내에 성과적으로 끝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가 현저히 가셔지고 부문내부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기간 흥남비료공장의 류안비료생산계통과 순천석회질소비료 공장, 본궁화학공장의 석회질소직장 및 염안직장이 완전히 복구된

것을 비롯하여 모든 화학비료공장들이 복구개건되었다.

또한 본궁, 청수, 순천의 카바이드생산시설, 남포의 가성소다 생산시설과 홍남지구의 류산, 염산 직장들이 완전히 복구되었다.

청진화학공장과 평양화학공장, 길주팔프공장들의 인조섬유 및 팔프 생산공정들이 복구되었으며 원산석유공장 등도 복구되었다.

일제가 파괴한 화학공장들의 복구와 함께 새로운 소다공장, 염료공장, 석회비료공장, 집축류산공장 등 여러 공장과 직장들이 짧은 기간내에 건설되고 평양, 청진, 홍남 등지에 새로운 의약품공장 건설이 적극 추진되어 조업하였거나 완공됨으로써 국영제약공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해방후 짧은 기간에 완전히 복구되었을뿐아니라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공장들이 건설됨으로써 화학비료, 인조섬유, 의약품, 물감 등 농촌경리발전과 인민소비품 생산에 직접 쓰이게 될 완제품생산비중이 훨씬 높아졌으며 카바이드, 산, 알카리 생산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러지고 카바이드로부터 출발하는 알콜, 아세톤을 비롯한 새로운 유기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꾸러졌다.

따라서 화학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현저히 퇴치되고 화학공업의 부문내부구조가 개선되어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를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기초가 믿음직하게 마련되게 되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둘째로, 화학제품생산이 급속히 장성되어 1949년에 벌써 해방전인 1944년 수준을 훨씬 륭가한 것이었다.

해방후 화학공업이 급속히 복구되고 새로운 화학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됨으로써 1949년에 화학공업총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310%로 장성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 화학비료생산은 258% (그중 류안은 276%, 석회질소는 192%)로 늘었으며 류산은 282%, 가성소다는 278%, 카바이드는 324%, 팔프는 156%, 의약품은 무려 11배로 각각 그 생

산이 장성되었으며 인조섬유생산은 1949년현재 1947년에 비하여 208%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1949년에는 석회질소, 인조섬유, 팔프, 카바이드, 류산, 가성소다, 비누 등 중요화학제품생산이 일제말기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공장별 주요 품종들을 보면 본궁화학공장에서는 카바이드와 석회질소, 알람담, 청수화학공장에서는 카바이드와 아세틸렌블랙, 순천화학공장에서는 석회질소 등 화학제품생산이 1944년 수준을 훨씬 증가하였다.

이것은 새 사회 건설의 주인으로 된 우리 노동계급의 위대한 창조력의 고귀한 결실이었으며 조선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공장을 관리 운영할수 없다고 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셋째로, 기술창안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과학연구기지가 꾸러짐으로써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과학기술적기초가 마련된 것이었다.

화학공업부문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에 의하여 많은 기술적창안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었다.

알콜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카바이드로부터 알콜을 합성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당시 긴장하던 량공을 1년에 10만석이나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메타놀생산을 위한 가스발생로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석탄소비를 5분의 1로 줄이고 막대한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종전과 같은 량의 메타놀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기술창안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카바이드건기로, 전해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설비들의 리용률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수많은 원료와 연료,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많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창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한 결과 화학비료와 인건사를 비롯한 여러 화학제품들의 질이 높아

졌다.

특히 류안비료의 질소함유량은 20.6~20.9%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20.5%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석회질소비료와 가성소다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되었다.

이것은 일제 시기의 최고수준을 통과한 것으로 된다.

해방후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긴급한 문제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기지를 꾸려놓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1946년에 창립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화학전문가들이 양성된것은 물론 1947년 10월에는 화학공업부문 기술일군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홍남화학공업대학이 창설되고-홍남을 비롯한 여러곳에 화학공업전문학교들이 설치됨으로써 수많은 기술일군들이 양성되게 되었다. 한편 일하면서 배우는 야간 교육체계와 기술자자격시험체계에 의해서도 기술자들의 대렬이 늘어났다. 결과 화학공업부문의 기술자들은 1950년에 수백명으로 되었다. 또한 1946년에 홍남에는 산업성 홍남연구소가 새로 창설됨으로써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화학공업을 복구하며 장차 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제가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이 현저히 퇴치되었으며 자체의 화학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되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이 빨리 늘어남으로써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안정시킬수 있게 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화학공업부문앞에 가

로놓았던 에로와 난판이 극복되고 연유, 기계유, 폭약과 절연물 등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이 빨리 늘어남으로써 많은 광석과 석탄을 캐내고 철재와 건재 그리고 각종 설비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개건확장할수 있게 하였다. 인건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공업원료생산의 빠른 장성은 소비품생산 특히 직물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류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비료생산의 장성은 농업생산력을 높여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랑곡이 부족한 지대로부터 여유있는 지대로 전변시킬수 있게 하였다.

의약품생산도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새 사회 건설에 더 잘 참가할수 있게 되었다.

그 의미는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 화학공업을 자체의 힘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심히 파괴된 화학공장들을 복구확장하고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 어려운 투쟁과정에 우리 나라 화학공업부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귀중한 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이미 있던 화학공장들이 복구확장되고 새로운 화학공장들이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결과 화학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하여졌다.

그리하여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승리를 위한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었으며 전후시기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밑천으로 되었다.

제 2 장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 화학공업의 장래발전을 위한 준비사업 적극 추진

제 1 절.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 화학공업의 전시체제에로의 개편, 전시화학제품생산의 강화

1. 전시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 화학공업의 전시체제에로의 개편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리승만역도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새 조선 전설로 들끓던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내시고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한편 인민경제의 발전과 전시생산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전쟁승리를 보장하는데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에서는 국내의 모든 원천을 리용하여 공업용폭약과 군용폭약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7권, 191페이지)

《흥남비료공장을 비롯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미리부터 잘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6권, 23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화학공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공업용 및 군용 폭약을 비롯한 각종 군수용 화학제품과 생활필수품들을 계속 생산하며 전쟁승리후 화학공업을 빨리 복구발전시킬수 있도록 미리부터 그 준비사업을 잘하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화학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당면한 요구와 전후 화학공업을 복구하고 빨리 발전시켜야 할 전망적요구를 옹계 구현한 가장 정확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6월 26일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와 1952년 4월 13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 그리고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비롯한 강령적연설들에서 화학공업부문의 모든 사업을 빨리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적들의 폭격으로부터 화학공장들을 수호하고 생산설비들을 안전지대에 분산 소개하여 전시생산을 계속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파괴된 화학공업을 짧은 시일내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술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잘하여 장차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화학공업부문의 기본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실천적대

책들까지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시기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1951년 7월 3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산업성에서 화학공업관리국과 건재공업관리국을 분리하여 화학건재공업성을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1952년 10월 내각결정 제 182호와 1952년 12월 군사위원회 명령 제 343호, 1952년 6월 화학건재공업성 지시 제 12호를 통하여 전시환경에 맞게 군수용 화학제품과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1953년 3월 군사위원회 명령 제 358호를 비롯한 명령 및 내각결정들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조사사업을 잘하여 복구건설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며 전시 군수용화학제품 생산을 늘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의 기본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 및 대책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며 전후 파괴된 화학공업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발전시킬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은 화학공업의 모든 부문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화학공업부문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가능한 모든 화학공장들을 군수품생산공장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군수품생산을 위한 화학공장을 건설하며 긴급하지 않는 화학공장건설을 중지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화학공장들을 안전한 지대에 분산소개시켜 생산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산업성 화학공업관리국에서는 1950년 7월 군사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전시환경에 맞게 분기별 계획으로 기동성있게 전환시키고 생산, 건설, 자재분배, 로력배치 등 전반사업을 다시 검토한데 기초하여 1950년 3.4분기계획을 작성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보내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특히 군수품생산에로 넘어갈수 있는 대상

들을 선정하고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짧은 시일내에 끝내여 군수 화학제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군수화학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안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화학공업부문 노동계급들은 또한 전시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화학공장들을 안전한 지대에 소개시키며 공장들에서 생산설비들을 적들의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웠다.

그러하여 전쟁이 개시되자 짧은 기간에 화학공업의 모든 부문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군수화학제품과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화학제품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할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게 되었다.

2. 전시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 화학제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화학제품생산을 늘여야 전쟁에 필요한 폭약, 도화선, 퇴판 등 군수품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생활필수품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화학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화학제품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화학제품생산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무엇보다도 적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화학제품생산설비들을 수호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초시기에 벌써 미제의 폭격과 포격으로부터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보호할때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0년 7월 2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회 제 49차 회의에서 《적기의 폭격하에서 당단체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도록 하시면서 적의 폭격속에서 생산설비들을 사수하고 복구한 흥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 로동계급의 모범을 본받아 생산설비들을 지켜내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8월 1일에는 군사위원회 명령 제 39호로써 방공시설과 방화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각급 당단체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제 49차 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생산설비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사와 몸소 취해주신 조치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50년 8월에 열린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 67차 상무위원회와 1950년 8월 26일에 열린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 39차 상무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공장설비방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그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공장설비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공장설비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이 발기한 《나의 기대 구출운동》이였다.

흥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은 전쟁초기 미제의 폭격으로부터 공장설비들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나의 기대 구출운동》을 발기하였다.

1950년 7월 19일 미제침략자들이 첫 폭격을 하던 날 함성직장의 로동자들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탐기계의 폭발을 막아냄으로써 수많은 설비들을 구출하였고 동력직장의 돌격대원들은 자기몸으로 불이 붙는 동력설비를 덮어 귀중한 설비를 구원하였으며 증공직장의 한 연공은 혼자서 7,000크바 변압기주변에 떨어진 수많은 시한탄을 안아내여 공장을 지켜냈다.

1950년 8월 1일 적들의 두번째 폭격이 있던 날 변류직장의 직공장이였던 한 당원의 희생적인 투쟁은 더욱 감동적이였다.

이날 그는 적들의 폭격이 시작되자 즉시 변류기를 멈출데 대한 지시를 주고 자신은 제2배전실로 들어갔다. 주변에서는 폭탄이 쉴새없이 터지고 검은 연기로 하여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네놈들이 아무리 날치여도 우리를 굴복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한발자국한발자국을 더듬으면서 마침내 제2배전실 스위치를 끄고야말았다.

그가 겨우 불길속을 헤치고 밖에 나섰을 때였다. 이미 멈추어졌으리라고 생각했던 제3배전실변류기들이 계속 돌아가고있었다.

그는 다시 3배전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때 곁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벽체와 천정이 무너지면서 그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두다리를 쓸수 없게 된 그는 한치한치 기고 또 기였다. 또다시 곁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커다란 파편이 옆구리를 들이쳤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는 죽을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몸소 공장을 찾아주시고 지난날 사람값에도 안쳐주던 자기들의 두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이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던 그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고 해방후 몇해동안 행복하고 보람찼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을 가다듬고 가슴으로 한치 또 한치 기여가 마침내 제3호배전반도 끄고야 그자리에 쓰러졌다.

합성직장의 세포위원장이었던 탑운전공은 놈들의 폭격에 의하여 다리와 어깨, 머리 등이 상하여 움직일수조차 없는 몸이었으나 마지막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750기압의 3호압축기를 멈춰세우고 장렬한 최후를 마침으로써 3호압축기의 폭발은 물론 주변의 압축기들과 합성탑, 가스탱크, 암모니아설비들을 구출하였다.

홍남비료공장의 로동자들은 미제의 폭격으로부터 공장설비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 혁명동지들을 추모하면서 복수의 결의들을 다지였다. 모임에 참가한 한 로동자는 공장설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변류직장의 직공장과 합성직장 당세포위원장동무의 복수를 하는 길은 비료생산설비들

을 더 잘 수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기대 구출운동》을 벌릴것을 받기하였다.

뒤이어 모임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나의 기대 구출운동》을 전공장적으로 벌릴것을 받기하였으며 이 운동에 참가할것을 전국의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들에게 호소하였다.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이 받기한 《나의 기대 구출운동》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그것은 적들의 폭격으로부터 공장설비들을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설비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은 일시적전략적후퇴시기에도 힘있게 벌어졌다.

순천화학공장의 한 녀성당원은 일시적전략적후퇴시기 귀중한 설비들을 은밀한곳에 파묻고 후퇴의 길에 오르다가 그만 놈들에게 체포되었으나 목숨으로 비밀을 지켜냄으로써 한대의 설비도 적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적들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사형장에서 군중들에게 《...내 몸이 천만갈래 찢어진다 한들 어찌 로동당과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내가 잡고 일하던 그 망치로 마지막 한놈의 미국놈 골통까지 다 깨지 못하고 죽는것이 한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높이 부르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 《로동신문》 1979. 7.20

홍남비료공장 합성직장의 한 당원 역시 압축기설비들과 미처 전선에 보내지 못한 수류탄상자들을 은폐시키고 돌아오던 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었으나 추호의 동요없이 끝까지 싸웠으며 최후의 시각에는 놈들을 수류탄상자가 묻힌 장소에 유인하여 폭파시킴으로써 적들을 무리로 죽이고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본궁화학공장 급수직장의 한 당원은 기대들과 배판도, 기술문건들을 대피시키고 후퇴과정에 《치안대》놈들에게 체포되었으나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 1,000여대의 기계설비들과 문건들을 기어이 지

켜내고야말았다.

일시적 전략적 후퇴시기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은 기계설비와 문
건을 소개하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렸을뿐아니라 강
점자들을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렸다.

홍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은 지하투쟁조직을 못하고 적들의 천선보
급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벌렸다.

당시 미제침략자들은 전선동부에 대량적으로 투입되는 제놈들
의 병력과 전투기술기재들을 홍남항을 통하여 수송하려고 책동하였
다. 따라서 적들은 홍남항과 홍남비료공장 급수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로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그 시설들을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지하조직에서는 적들의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양수용전동
기에 물을 쏟아부어 전동기를 타게 함으로써 적들이 함선에 물공급
을 할수 없게 하였다.

또한 적들이 패주하면서 급수시설을 파괴하려고 정수장과 급수
판에 물을 가득 채워 얼어터지게 하려는 기도를 미리 알아내고 물
을 뽑아버림으로써 급수시설을 구원하였으며 기관차승무원들은 공
장으로부터 홍남항으로 가는 철길구간에서 열차를 탈선시킴으로써
놈들의 군사기술기재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수송에 혼란을 조성시
켰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화학제품생산투쟁에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것은 다음으로 생산설비들을 안전지대에 이설하고 파괴된
생산시설들을 제때에 복구하여 생산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단체들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설비들을 안전한 지대에
이설하고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6권, 135페이지)

생산설비들을 안전지대에 소개하며 생산을 계속하는것은 전쟁
의 승리에 필요한 군수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
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였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폭격과 포격이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야수적으로 진행된 조건에서 생산설비들에 대한 소개는 매우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악랄한 폭격과 함포사격이 더욱 심하여지는 조건에서 1952년 12월 25일 화학전재공업상 명령 제18호를 하달하도록 하시여 남포지구, 흥남지구, 해주지구의 공장설비들을 집중적으로 이설하며 생산을 계속 보장할데 대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여주신 조치에 따라 길주팔포공장에서는 설비이송대를 조직하고 렬차로 설비를 후송하는 사업을 벌렸다.

그들은 설비를 후송하는 도중 적들의 폭격으로 기계에 불이 달리자 그것을 자기 몸으로 덮어쓰면서 기계설비들을 목적지역까지 무사히 수송하였다.

기계설비들을 철도역에서 소개지까지 운반하는것도 매우 힘겨운 투쟁이었다.

특히 24척 선반과 프레나 운반이 어려웠다. 그들은 통나무로 운반차를 만들고 거기에 기계를 실은 다음 마을의 부림소를 빌려다 끄는 한편 손으로 권양기를 돌려 한치한치 운반함으로써 설비이송작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신의주팔포공장 로동자들은 적들의 악랄한 폭격속에서도 중요한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안전지대에 소개하고 전시생산에 들어감으로써 팔포를 계속 생산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복구대를 조직하여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시설들을 제때에 복구함으로써 전시생산과 전선수송을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저작집》 6권, 82페이지)

파괴된 생산시설들을 제때에 복구하고 생산을 계속 보장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8.15해방 5돐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모든것을 전선으로》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미제

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생산시설들을 제때에 복구하여 생산을 계속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일시적전략적후퇴시기에 파괴된 경제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1951년 1월에는 경제 및 문화의 제1차 복구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제191호와 같은해 3월 내각결정 237호 《1951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의 복구발전계획》을 채택하게 하시여 파괴된 공장 및 생산시설들을 빨리 복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몸소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1950년 8월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제67차 상무위원회에서는 폭격당한 공장들에서 복구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같은해 8월 26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9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청년복구대》, 《직장민청들격대》를 조직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복구에서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화학건재공업성에서는 1952년 8월 지시 제18호를 하달하여 흥남비료공장의 접촉류산암모니아계통, 본궁화학공장의 알콜, 물전해계통을 비롯한 생산시설들을 시급히 복구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깊이 새긴 흥남비료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적들이 파괴한 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미제공중비적들에 의하여 두차례나 공장이 파괴된 다음날인 1950년 7월 20일에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복구공사특별작업대를 조직하고 복구공사에 떨쳐나설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장복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은 불과 며칠동안에 합성직장의 지붕트레스작업을 끝내고 제관직장의 복구계획을 매일 2~3배로 초과수행하였다.

본궁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적들의 폭격으로 공장이 혹심하게 파괴되었을 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심도 드높이 《원썩들이 천번 폭격하면 천번 복구하자!》라는 구호밑에 복구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소다직장과 알콜증발탑 복구공사를 15일 동안이나 앞당겨 끝내었다.

공장복구를 위한 투쟁은 일시적 전략적 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의 생산시설들이 혹심하게 파괴된 이후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은 1951년 3월 12일 공장종업원총회를 열고 공장설비들에 대한 적들의 야수적인 파괴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공장복구기간단축경쟁운동을 벌릴것을 홍남지구의 4대공장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본궁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공장복구돌격대를 조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라고 하면서 낮에 밤을 이어 공장복구에 떨쳐나섬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폭격과 포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1952년 6월 29일 화학전제공업상 지시 제 12호를 비롯한 내각결정 및 성령들을 통하여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재 운전중에 있거나 앞으로 운전할 설비들에 대하여 돌과 가마니, 모래 등으로 방탄시설들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적들의 폭격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계속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은 무게가 100톤이 넘고 높이가 10여미터나 되는 2000톤프레스 주변에 흙가마니를 쌓아올려 폭탄과 포탄으로부터 설비를 원만히 수호하고 전시생산을 계속할수 있게 하였다.*

* 《로동신문》 1970. 7. 8

영안화학공장 로동계급들은 장렬한 최후를 마치면서도 프레스를 구출할것을 부탁한 원료직장 직장장의 고상한 애국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불비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방탄용흙가마니를 성과적으로 쌓아 전쟁 전기간 프레스를 보호하고 생산을 계속할수 있었다.

길주팔프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적들의 시한탄이 공장구내에 떨어졌을 때 《목부는 공장의 심장이다. 목부를 사수하자!》라고 하면서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시한탄을 제거하였으며 방탄벽을 성과적으로 쌓고 설비를 수호하였다.

이와 같이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영웅적투쟁을 벌림으로써 화학제품생산설비들을 적들의 폭격 및 포격으로부터 수호하고 설비들의 가동을 보장하여 전쟁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다음으로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화학제품생산을 적극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7권, 80페이지)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는것은 전쟁승리의 중요한 담보였다.

청소한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실로 준엄한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날 주권이 없었던탓에 피눈물나는 생활을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맨주먹뿐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화학공업부문에서 공업용폭

약과 · 군수용 폭약 등 화학제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2년 2월 도, 시, 군 인민위원회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증산하고 절약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편 군사위원회명령과 내각결정들을 통하여 매해 화학제품생산계획과제들을 제시하시고 늘어나는 화학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대들에 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화학전재공업성에서는 1952년 8월 지시 제 18호와 1952년 12월 15일 지시 제 45호, 1953년 2월 2일 명령 제 3호들에서 화학공장에서 도화선과 퇴판 생산을 늘이는 한편 새로운 공장이 건설되는 차제로 퇴판, 도화선, 폭약 생산을 빨리 진행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지시들에서는 또한 폭약류군수품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안 화학공장에 프레스를 빨리 설치하여 각종 가공제품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며 가성소다, 염산, 표백분의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미 시작한 공장의 건설속도를 더욱 높이고 흥남지구 비료 공장과 화학공장에서는 축전지, 건전지, 도람판, 카바이드, 피치전극, 비누, 풍기름, 건된장, 간장 등의 생산을 계속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2년 1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경제절약운동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1952년 3월에는 산업운수부문 전국열성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증산절약운동을 힘있게 벌려 1952년 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몸소 취해주신 조치,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대책에 따라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속에서 벌어진 증산경쟁운동은 《전선청년작업반운동》, 《5.1절기념증산운동》, 《전선배가생산운동》, 《시간외 로동운동》, 《공휴일로동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1950년 7월 1일 본궁화학공장에서는 35명의 작업반장들과 청년열성자들의 참가밑에 전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열성자회의를 열고 《전선청년작업반운동》을 벌릴것을 전국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에는 불과 며칠사이에 흥남지구 로동계급들은 물론 전국의 1,824개의 작업반들에서 2만 1,133명의 청년로동자들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후 더욱 확대되었다.

《전선청년작업반운동》을 발기한 본궁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군대와 같은 로동규률을 확립하고 작업을 2교대제로 개편하였으며 기술전습제를 강화함으로써 매일 계획을 160% 이상 초과수행하였다.

청수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전선청년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1950년 9월현재 계획을 초과수행하면서도 115만원의 원가를 낮추어 7만원의 증산경쟁상금까지 수여받았다.

순천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1951년 5.1절을 맞으며 《5.1절기념증산경쟁운동》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그들은 5.1절에 즈음하여 전체 로동계급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수많은 기능공들이 전선에 나간 조건에서 기술전습제를 강화하여 기능공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로동규률을 강화함으로써 2배이상의 작업성과를 올리였다.*

* 《평남로동신문》 1951. 4. 26

순천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또한 《전선배가생산운동》을 발기하고 파괴된 생산설비들을 제때에 복구정비하며 매일 이 운동 진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카바이드생산계획을 130% 이상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시증산경쟁운동이 화학공업부분의 모든 단위들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화학건재공업생산하 25개의 기업소들가운데서 홍남비료공장을 비롯한 20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1952년도 연간생산계획을 176.7%, 로동생산능률은 172.6%로 넘쳐수행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 9월에는 영안화학공장이, 같은해 10월, 11월, 12월에는 홍남비료공장이, 1953년 1월에는 본궁화학공장이, 같은해 2월, 3월, 4월에는 순천화학공장이, 5월에는 서흥석회공장이, 6월에는 홍남비료공장과 서흥석회공장이 직총중앙위원회와 화학건재공업성의 공동명의로 된 순회우승기를 수여받았다. 이것은 전시증산경쟁운동이 얼마나 광범한 범위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분 로동계급속에서 힘있게 벌어진 대중운동의 다른 하나는 절약운동이었다.

절약운동을 벌리는것은 자재, 설비, 자금 등 모든것이 부족한 전시의 조건에서도 전쟁승리에 필요한 화학제품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였다.

절약운동에서 중요한것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이었다.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는것은 보다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평양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원료와 자재의 부족을 타개하자면 적은 원료와 자재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가저하운동을 발기하였다.

그들의 발기는 전국에 확대되어 1950년 8월까지만 하여도 화학공업부분은 물론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공장, 기업소의 376개의 작업반들에서 1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원료낭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었다.

신의주팔프공장의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이 낮은탓에 적지 않은 원료들이 류실되고 초지기에 사용하는 모포가 빨리 파손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2일에 한번씩 기술전습회를 진행하여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한편 여러가지 기술적대책을 세움으로써 팔프생산의 실수률을 3%이상 더 높이면서도 월 3톤의 원료를 절약하였다.

원료랑비를 없애기 위한 화학공업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밖의 여러 공장들에서도 광범히 전개되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대용자재를 널리 리용하는것이였다.

영안화학공장의 노동자들은 축전지케스생산에 필요한 콤파운드와 에보나이트가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용자재를 쓰기 위한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한 결과 자기 공장에 흔하게 널려있던 누대기, 보이타바킹부스레기, 석면등을 원료로 하여 훌륭한 축전지케스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면서도 제품생산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길주팔프공장의 노동자들은 종이를 생산하는데 풀물로 쓰이던 황초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험을 거듭하던 끝에 주변야산들에 흔한 송구지, 둥굴레를 가지고 황초의 10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종이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따라서 수많은 황초를 절약하였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 절약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1952년 2.4분기에만 하여도 화학공업부문의 16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11만 7,700원의 분기간 자금절약계획을 거의 4배나 초과하여 43만 6,100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시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전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것이였다.

당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력에 의하여 발전소들과 송배전설비들이 파괴되고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전시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발전소들을 적의 공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서는 고사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변전소를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

홍남비료공장을 비롯한 홍남지구인민공장들의 로동계급들은 홍남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1951년 3월에 진행된 홍남지구 5대공장 당 및 행정간부련석회의에서 적들의 폭격에 대처하여 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한 변전소를 건설할것을 결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새로운 변전소건설은 크게 두개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단계는 이미 후퇴하기전부터 건설하던 변전소를 확장하는것이고 둘째단계는 변전소설비들을 새 변전소에까지 옮겨다 설치하는것이였다.

각 공장에서 선발된 청년들은 돌격대를 조직하고 밤낮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면서 변전소공사를 추진시켰다.

한편 돌격대원들은 변압기이설전투를 벌렸다. 대형변압기를 비롯한 변전소설비들을 옮기는 공사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이미 있던 변전소에서 새 변전소까지의 길은 폭격에 의하여 다 파괴되였고 그것마저도 낮에는 적기의 공습으로 매우 위험하였다.

어느날 돌격대원들이 대형변압기를 옮기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달려든 적기들이 이미 있던 변전소주변에 시한탄을 마구 떨어뜨렸다. 위기일발의 순간 돌격대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시한탄을 제거함으로써 변압기를 구출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반하였다.

대형설비들을 설치하는 작업도 간단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타개하면서 1951년 8월 8일에는 시운전에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적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전력공급을 보장하였다.

동력문제를 풀기 위한 혁신적안들과 합리적인 방안들도 수많이 나왔다.

길주팔프공장에서는 전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곳 노동자들은 정전되었을 때 쓸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몇대의 자동차기관을 리용하여 그것으로 생산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그들은 집체적협약에 소형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하고 두개조로 나누어 한조는 수차를 비롯한 발전설비들을 만들고 다른 한조는 수로건설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수로건설로동자들은 물원천을 찾았고 지어 폭탄구덩이의 물까지 빠짐없이 리용하여 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전시조건에서도 당보를 비롯한 종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전쟁시기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시생산을 보장한것이였다.

모든것이 부족한 전쟁의 조건에서 늘어나는 전시수요를 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들을 비롯한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창안도입하여야 하였다.

홍남비료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축산지생산에서 많은 로력을 소비하던 수공업적격자생산방법을 없애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모으고 10여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여 마침내 800%의 생산능률을 내는 랭압식격자주조법을 완성하였으며 선반직장에서는 통형식가공법을 통형원형식가공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400%이상 높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952년도 생산계획을 5월 13일현재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곳 로동계급들은 원자재의 부족을 타개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1952년도에만 하여도 28건의 창의고안을 실현하여 국가에 530만원(구화폐)의 리익을 주었으며 1953년도에는 61건의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전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평양곡산공장 제약직장의 로동자들은 각종 합리화안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약품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전쟁초기 주사약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주사약을 생산해본 경험도 없었고 설비와 자재도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사약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주사약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그들은 집체적지혜를 모아 대동강물을 증류하기 위한 합리적인 창안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증류수를 자체로 해결하고 훌륭한 주사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길주팔프공장의 로동계급들은 부족되는 원료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그들은 공장에서 폐설물로 버리고있던 잔여물을 재생리용하기 위한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표준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였다. 그리하여 잔여물을 배설로에서 가열하여 리용하는 방법으로 부족되었던 원료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간을 5~6시간 단축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현저히 높였으며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되었다.

전시 화학제품생산을 위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은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렬내에 숨어있던 간첩암해분자들의 책동이 더욱 심해졌다.

이로부터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공장에 잠입하여 파괴책동을 감행하던 간첩암해분자들을 적발속청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화학제품생산설비들을 수호하고 소개이설하며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전쟁승리에 필요한 화학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화학공업총생산액은 1952년도에는 106.3%, 1953년에는 106.8%로 넘쳐수행되었으며 그중 1952년도에 홍남비료공장은 121.5%, 순천화학공장은 104.5%, 영안화학공장은 172.3%, 남포소다공장은 201.3%로 그리고 1953년도에는 홍남비료공장이 136.7%, 본궁화학공장이 108.5%,

청수화학공장이 127.9%, 순천화학공장이 177.3%, 평양산소공장이 225.9%로 초과완수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 화학공업부 보관자료 참고

종업원 1인당 공업생산액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1952년도에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1인당 공업총생산액이 1951년도에 비하여 2배이상 장성하였으며 특히 청수화학공장은 6배나 높아졌다.

이 모든것은 전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화학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이 전쟁승리에 필요한 화학제품생산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얼마나 높이 발휘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제2절. 전후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강화

1. 파괴된 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반드시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빨리 다그쳐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7권, 150페이지)

미제침략자들은 전쟁 첫날부터 일찌기 그 류레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모든 공장, 기업소, 주민가옥들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오히려 전쟁의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승리할 앞날을 내다보면서 전후복구건설준비를 진행하였다.

전쟁시기 화학제품생산을 보장하면서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복구개건계획을 미리 세우며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앞세우는 등 전후 복구건설준비를 예견성있게 하여야 흑심하게 파괴된 화학공업을 빨리 복구하며 락후하였던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와 1952년 4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전후복구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전후복구건설전망계획을 바로세우며 비날론을 비롯한 유기합성공업에 대한 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1953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전후경제복구건설방향에 대하여>에서 파괴된 공업을 단순히 원상대로 복구할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공업의 기형성과 전쟁시기에 발로된 공업의 부족점들을 퇴치하고 나라의 장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축성하는 방향에서 공업을 복구개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전후에 복구건설해야 할 대상들이 많고 자재, 자금,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선후차를 가려 중요한 대상부터 먼저 복구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론에서 또한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류안비료공장 등을 복구신설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를 생산보장하며 기타 여러가지 원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쟁승리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미리부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용사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준 고무적기치였으며 전쟁승리후 짧은 기간내에 화학공업의 복구발전시킬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3년 3월 25일 군사위원회 명령 제 358호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피해조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와 1952년 3월 15일 중공업상 지시 제 30호 《전후 3개년 복구계획작성에 관하여》 그리고 1953년 4월 20일 화학전재공업상 지시 제 27호 《복구건설계획작성에 관하여》를 비롯한 명령과 지시들을 통하여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처럼 구체적인 대책들까지 세워주심으로써 우리의 로동계급들은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피해조사사업과 전후복구건설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후복구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7권, 510페이지)

전쟁에 의한 피해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복구건설의 대상과 규모를 옳게 선정하고 계획을 현실성있게 바로세울수 있으며 또한 복구건설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전쟁이 끝난 다음 인차 복구건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될수 있었다.

화학전재공업성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피해정형을 정확히 조사장악한 조건에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본궁화학공장에서는 폭탄구덩이를 메울 흙량과 파괴된 건물복

구에 필요한 벽돌량 그리고 배관들과 뿔프실들의 파괴상태와 피해정형을 정확히 조사장악하였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동력선 및 통신선, 지하급수망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홍남지구 배관복구도면을 성과적으로 작성완료하였다.

전반적인 화학공업부문 공장들에서 피해정형이 조사장악되고 파괴된 설비들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들이 작성됨으로써 전후 빠른 시일내에 화학공업을 복구발전시킬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마련되게 되었다.

2. 비날론생산의 공업화를 비롯한 과학연구 사업의 강화, 화학공업부문 기술인재 양성사업의 적극적추진

전쟁시기 비날론을 비롯하여 카바이드를 시초원료로 하는 유기합성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전후에 자체의 원료에 기초한 다방면적인 화학공업을 빨리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우리 나라에서 유기합성화학공업을 창설하여야만 전후에 모든 화학공업부문을 빨리 완비하여 화학비료와 함께 화학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의약품과 염료, 도료 등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었다. 특히 카바이드를 시초원료로 하는 유기합성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화학공업을 자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이었다.

비날론은 화학섬유의 일종으로서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하여 생산되는 주체적인 화학섬유이다.

화학섬유의 생산은 자연섬유의 생산에 비하여 일련의 우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기후적영향을 받지 않으며 로력이 자연섬유에

비하여 적게 들고 원료를 대량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화학섬유는 경지면적이 제한되고 목화의 재배수확고가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도였다.

화학섬유에는 비날론, 스프, 인견사, 데트론, 나이론, 아닐론, 모비론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다.

화학섬유들중에서 비날론, 스프, 인견사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조건이 좋은 가장 합리적인 섬유이다. 그것은 이러한 화학섬유들은 우리나라에 풍부한 석회석, 무연탄, 갈과 강냉이대를 원료와 연료로 하여 능히 생산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인조섬유와 스프 생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비날론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본래 비날론은 우리나라의 한 과학자에 의하여 1939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였다.

그는 해방전에 일본에 가서 비날론에 대한 연구를 하여 논문까지 썼으나 일본에서는 비날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수가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그는 남조선으로 건너왔으나 거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그에게 초보적인 연구조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공헌을 할수 있는 재능있는 과학자가 남조선에서 버림을 받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를 데려오도록 하시였으며 유능한 과학자들로 연구집단을 꾸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구사업조건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적들의 공습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안전한곳인 청수에 아담한 2층짜리 연구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전선에 나갔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부문 과학기술일군들을 모두 그곳에 부르시여 비날론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이 부문 과학일군들을 여러번 만나시어 우리 나라 원료원천에 의거한 자립적 화학공업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으며 연구방향도 제시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1952년 6월초순경에는 연구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세라 귀중한 실험기구와 시약 그리고 외국에서 구입한 전문 기술서적들까지 친히 보내주시는 은정을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시적 전략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는 몸소한 과학자의 가족의 후퇴정형을 료해하시고 직들의 공습에는 자동차보다 달구지가 더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달구지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 속에서 연구집단은 비날론을 시험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비날론에 대한 시험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비날론생산의 첫공정인 초산비닐합성을 위한 촉매용활성탄을 만드는 것이였다.

연구집단은 이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굳은 결심밑에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필요한 소재를 얻어다가 활성탄재료실험을 다그쳤다.

그들은 거듭되는 실험과 실패에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집체적 힘과 지혜를 모아 생소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기이이 고로쇠나무와 박달나무 숲을 구워 활성탄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연구집단은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들을 타개하면서 연구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알루미늄용접 봉제작과 확대장치를 비롯한 시험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새로 연구제작한 활성탄으로 초산비닐을 검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중합, 검화 연구실험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비날론의 실험실적연구를 완성하고 1954년에는 마침내 일산 20키로그램의

중간 시험공장을 건설할수 있게 되었다.*

* <력사과학> 1990년 1호, 10페이지, <화학> 1968년 5호, 4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날론에 대한 연구사업뿐 아니라 합성고무를 비롯한 유기합성제품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합성고무에 대한 연구사업은 천연고무가 생산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고무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레일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합성고무연구에 대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1년 11월초 중앙의 한 일군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여 합성섬유에 대한 연구사업은 진척되고있으나 합성고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백지상태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조직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전쟁전에 외국에 보내여 공부시킨 동무가 얼마전에 돌아와 지금 청수화학공장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데 합성고무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니 그 동무를 책임자로 하고 몇명의 사람을 조수로 붙여서 하루라도 빨리 합성고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일군을 현지로 떠나보내시면서 많은 연구비까지 배려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합성고무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추진시키기 위하여 1952년 12월에는 청수화학공장에 있는 고무연구위원회를 화학전재연구소 고분자연구실에 편입시키도록 하시였다.

당시까지 합성고무생산에 성공한 나라들이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그 기술자료가 나라마다 다르고 그것마저도 엄격한 비밀에 붙여고있었으므로 참고할만한 기술문헌도 별로 없었다. 일부 공개되는

자료들이라야 극히 단편적이거나 실속이 없는것들이였다.

이런 조건에서 연구집단은 주체적립장에서 합성고무문제를 해결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안고 연구를 거듭해나갔다. 그리하여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몇해후에는 고무의 단량체를 합성하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액체연료와 화학비료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1952년 12월에 한 화학공장에 있던 액체연료연구위원회를 화학건재연구소 액체연료연구실에 편입시키도록 하시였으며 홍남비료공장 비료연구실사업도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액체연료 및 비료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으며 주체적립장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석유화학과 화학비료 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화학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연구사업이 추진된 결과 1951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카바이드제조시의 열력학적함수들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평형온도를 결정하였으며 본궁화학공장에서는 평화적건설시기부터 진행해오던 카바이드에서 알콜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홍남비료공장에서는 린산축매에 의하여 류안비료의 질소성분을 리론치에 가까운 20.6%까지 높일수 있게 하였다.*

* <로동신문> 1952. 5. 7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전후화학공업을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기술간부가 없이는 전후복구건설도 할수 없으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도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7권, 217~21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서 기술인재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전쟁의 어려운 조건

에서도 민족기술간부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2년 6월 17일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며 부족한 교원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조건과 설비를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1952년 내각결정 제38호를 통하여 각종 기술전문학교를 관계성과 내각직속 국들에 이관하여 학생들의 생산실습을 더욱 실속있게 하도록 하시였으며 같은해 내각결정 111호를 통해서는 각 직장에 있는 기술학교와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직장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하고 거기에 전문부와 초급부를 두어 교육하도록 하심으로써 교육에 대한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대학과 전문학교들을 안전지대에 소개하여 교육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시였으며 1951년 8월에는 《대학졸업생 및 대학생 소환에 관하여》라는 군사위원회 지시를 내리시여 전선에서 싸우는 대학생병사들을 소환하는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여주시었다.*

* 《력사과학》 1990년 1호, 10페이지

화학건재공업성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군사위원회 명령, 지시, 내각결정들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지시 제8호와 제16호를 통하여 학과별, 학년별 학생수를 전반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규정하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교수요강을 작성하였으며 생산실습을 정확히 조직할데 대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몸소 취해주신 혁명적조치들은 가련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전후복구건설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홍남공업대학(오늘의 화학공업대학) 및 홍남화학공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화학전문학교들에서와 공장기술전문학

교들에서는 승리한 래일의 화학공업을 떠메고나갈 화학공업기술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자체로 기술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많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양성되어 1952년에만 하여도 홍남공업대학에서는 11명의 유기화학기사와 13명의 무기화학기사, 6명의 화학기계 기사를 비롯한 40명의 기사들을 양성하였으며 홍남비료공장에서는 기능자 양성소에서 420여명이, 기술학교에서 120여명이 각각 기술을 배웠고 기능전습과 기술강의를 통하여 713명이 기능공 또는 한등급 높은 기능공으로 자라났다.*

* <로동신문> 1952. 9. 20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 기술자들의 장성수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공장별 년도	화학공업	본 공	홍남비료	청수	순천	영안	규산염 화학
	관 리 국	경영국					
1951	270	80	107	20	5	5	10
1952	243	92	87	21	7	7	2

기술자중 기사의 장성수는 다음과 같다.

공장별 년도	화학공업	본 공	홍남비료	청수	순천	영안	규산염 화학
	관 리 국	경영국					
1951	65	21	14	6	—	1	3
1952	59	25	17	6	—	1	1

기술자중 기수의 장성수는 다음과 같다.

공장별 년도	화학공업	본 공					규산염
	관 리 국	경영국	홍남비료	청수	순천	영안	화학
1951	205	59	93	14	5	4	7
1952	184	67	70	15	7	6	1

우의 도표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 문에서는 513명(그중 기사 124명, 기수 389명)의 기술자들이 늘어났다.

이것은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기술인재들을 중단없이 양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우리 당 교육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으며 전후화학공업을 복구발전시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할수 있게 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는 첫째로, 조국해방전쟁승리와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군수품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이 원만히 보장된것이다.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설비들을 지체없이 안전지대에 분산소개하고 중요한 생산시설들은 지하에 옮겨 생산을 계속하였으며 미제의 야만적 폭격과 포격으로부터 공장설비들을 사수하였고 파괴된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복구하였다.

그들은 설비, 자재와 로력이 부족하고 전력공급이 자주 중단되

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전시증산경쟁운동과 절약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널리 받아들여 다이나마이트, 도화선, 퇴판을 비롯한 군수품과 인민생활필수품들을 생산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카바이드, 가성소다, 팔프, 의약품들을 비롯한 중요 화학제품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났다.

카바이드생산은 1951년에 비하여 1952년에는 2.9배, 1953년에는 7.3배로 높아졌으며 1953년현재 1951년에 비하여 팔프는 172%, 비누는 212%로 그 생산이 늘어났다.

전시 의약품생산도 매우 빨리 늘어나 1953년에는 1951년에 비하여 313%, 1949년에 비하여 144%이상, 1952년에는 1951년에 비하여 5.4배, 1953년 상반기에는 1951년 전기간의 4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 <로동신문> 1954. 1. 26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전시의 환경에 맞게 군수품생산과 함께 된장, 간장, 콩기름, 밥통, 물통, 가마, 삽, 곡괭이, 물감, 성냥, 단추를 비롯한 수많은 식료 및 일용필수품과 영농작업에 필요한 제품들도 생산보장하였다.

그리하여 화학제품생산은 해마다 늘어나 1952년에는 1951년에 비하여 화학공업총생산액이 218.6%로 장성하였으며 1953년에는 1951년에 비하여 275%로 장성하였다.*

* <조선중앙년감> 1953년, 533페이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는 둘째로, 파괴된 화학공업을 복구하기 위한 설계안들이 작성되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이 힘있게 추진된것이다.

화학공업부문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파괴된 화학공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발전전망을 고려하여 전후 화학공업의 총복구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개별

적인 공장, 기업소와 생산설비들의 복구개건을 위한 설계사업도 적극 진행하였다.

또한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과 홍남공업대학을 비롯한 대학들과 화학공업전문학교들, 기능전수학교들에서 우수한 기술자와 기능공들이 수많이 양성되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비날론의 공업화와 합성고무, 액체연료, 화학비료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전후복구건설과 화학공업의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시기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가 가지는 의의는 우선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데 있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화학공장들에서 생산을 계속함으로써 현대전에서 다량으로 요구되는 군용폭약을 더 많이 만들어 총포탄에 대한 전선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켰으며 인민군대의 무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이 늘어남으로써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일용화학제품생산량도 확대되어 주민들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미제침략자들을 패배시키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되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가 가지는 의의는 또한 전후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혹심하게 파괴된 화학공업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발전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여러 화학공장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화학공업의 발전전망에 기

초하여 그 복구개건안이 작성되고 그에 기초하여 설계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일부 공장들에서는 기초공사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나라의 여러 지방에는 새로운 화학공장들이 일떠섰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제대군인들과 우수한 로동청년들, 지어는 고지에서 싸우는 전선용사들까지 소환시켜 공부시킴으로써 화학공업부문 기술인재들이 미리 준비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비날론에 대한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후 화학공업을 빨리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물질기술적 준비는 전쟁승리후 화학공업의 복구건설을 다그치고 여러가지 화학제품의 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었다.